

김익순전이라



[해제]

이 작품은 <박금강금강산유산록>, <계산가>, <노인가> 등과 함께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다. <김익순전이라>는 김익순의 손녀딸인 작중 화자가 자신의 결혼 생활과 함께 시집가는 딸에게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은 장편 여성 가사이다. 작품의 내용과 전혀 관련없이 작품 제목을 <김익순전이라>고 붙인 까닭은 여성의 이름을 앞세우기가 어려웠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중 화자의 조부의 이름을 작품의 제목으로 내세운 듯하다. <김익순전이라>의 작품 구성은 김익순 손녀딸의 혼인과 결혼생활, 딸에게 권면하는 내용, 개똥어미 이야기, 경계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의 강조 등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의 작중 화자인 김익순의 손녀딸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문벌은 좋으나 가난한 서비의 집으로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며, 가산(家産)을 불리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식을 출사에 이르게 하는 등 유교적 현모양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딸에게 권면하는 덕목 역시 유교적 현숙한 여성상에 대한 것이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치로 '개똥어미'의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익순전이라>의 형식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작중 화자인 김익순의 손녀딸의 이야기와 개똥어미 이야기가 각각 짧은 전기로 익혀질 수 있을 만큼 일정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단순히 열거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행동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작중 화자는 이러한 입체성을 잘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삽입시키는 등의 극적 요소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자칫 긴 내용과 상투적인 내용으로 말미암아 지루해질 수도 있을 <김익순전이라>에 흥미와 재미를 잃지 않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문]

김익순전이라

에화세승 슝롬더라 이니말숨 드러보소
불형흐드 이니몸이 여즈로 싱게나서
금익순의 손여로 문벌로도 조흘시고
금옥궂치 귀히길너 오육세 되온후의
진진헌벨 초등을 입뭇업서 못드먹고
분백스창 흥촉하의 칙즈도 괴경하고
세시복납 조흔씨의 상육도 더저보고
질거이 지닌든이 연광이 십육세라
고르고드 시골누 궁호의 출그하여
헌절궁의 손부되이 문벌은 족하건만는
그산이 흘수업서 싱이그 망연흐드
수간모옥 종궁상의 다만서백 쏘이로드
소슬한찬 부역의드 맛탕관 훈누쑤이로드
신흥시의 허드하인 뉘르서 꺾인들 맥일손야
허드하인 그저그이 열척업서 우숨이라
후형오신 오라반임 올면보고 허는말숨
혈일업드 그저그즈 여드두고 엇씨그저 골리요
훈이올라 반일 실언이요 그존말숨 실언니요

여자의 몸이되야 삼종지에 잇서시어
부부로 정흔후의 농편을 좃치리랴
남편얼 좃칠썬디 빈부을 따릴소그
별동화원 조흔집은 친부모의 예집이요
소슬한 수근초당은 구고계신 닉집이랴
덕분을 엇씨하며 팔조를 석일소그
출그외인 싱곡말르시 팽안이 회정호오
현구고 삼일만의 주호로 드러그이
팔십된 부모공양 무엇슬로 후잔말고
은죽절 저등잡퍼 쌀을풀고 반찬사고
남우사고 오육일 지닌후의 글노엇씨 지닐소그
훈수훈것 만컨마는 이로지 감당 못홀네랴
친그의 약근구제 글노엇씨 동홀손야
천황씨 곱든 서방임은 글박씨 무엇올이
연만하신 시부모는 다뫓망연 썬이로든
암상훈 시누는 업논몬양 무슴일고
듯고도 못든는체 보고도 못보는체
말못하는 병얼인체 염여업는 병신인체
무죄훈 수종만 나게 하고 이고기숙여
죵죵하고 연만하신 부모마음 횡여는 거살림그
친정싱각 후는마음 어딴서 싱각하며
구고압페 웃논낫치 저즐거워 글러하는
체제기색과 불리족을 탐하여 공식하며
육승포와 승목은 그늘고도 곱씩후야
기울고도 풀른스발 논의차서 곱씩하며
일곱되 팔라운쌀 수워먹은 두되콩을
이렇저렇 곱소난이 먹을썬시 잇슬소야
그러후는 조흔드시 질거후며 날고기논
기달긴들 얼운 압페곰이
부인의 목소리그 문밖씨 향여놀그
달기울러 식벽되면 오날날은 엇씨홀고
민민훈 조심마음 시주들 이질손그
횡여는 흑신 누의게날가 조심도 무궁후다
친그의 편지후야 설원사정 부질엇든
훈번두번 안이어든 친정부모 주리논양
자식되는 마음인들 뉘든러 후잔말고
방비후는 설미불너 동역집의 보니썬이
단여와서 후는말리 전의썬인 불리도

안이갑소 염체업씨 쏘와야 양반의 비우라
이디지 썸썸이 쏘왓는야 두번말 말고라
흔이 혼숨흔드 이니몸이 금의옥식
씩여길너 가난흔을 몰나썸이 일시의
빈한흔이 복이업서 글러흔라 분하고
원통하시 슬푸드 이니신세 엇씨하야
사잔말고 이목구비 남과갓고 수족이
성성흔이 제심씨 살아흔면 어니뉘가 시비하리
빈흔함을 면흔리라 분한마음 싯처먹소
치산범절 심씨흔즈 이부즈 김부즈논
씨라본니 부즈든가 밤느즈로 심씨벌면
닌들안이 부즈될라 오식등스 라는실을
울울리 자오니여 유향기 큰뵈틀의
필필이 싸아니서 흘임주서 의복치며
병수사의 의복치며 녹의홍송 여상이며
청장관의 도복치며 어린아의 석옷시며
팔십노인 핫옷시며 원앙침의 수녹키와
봉황돈에 문의녹키 나자면 두필리요
밤이면 드섯라지 방적도 헉런이와
전답어더 농스흔식 씨을차자 심씨흔이
가업이 추성이라 알알리 세여먹고
푼푼이된다 뒗쓸의 밧철사고 압쓸의 눈을산드
울을씻고 담을싸며 씨을것고 기와이고
라라숫치 죽죽이은 수정흔이 쌍쌍이라
온팍중문 소슬드문 뇌식낙우 버러세고
돈씨기 녀녀흔이 요용소치 유죽흔드
시집온 십연만의 라손이 수만지라
능능금수 옷슬지여 철철리 라라입고
흔인중스 못지니면 돈을주워 구제흔고
궁교빈족 못스는이 니집갓치 구제흔드
라라의 일일所用 ���금이 격의로드
오돌행제 급제흔이 베살이 핵핵흔드
니외라 히로흔이 팔즈도 조을씨고
쌀을기너 출라출제 손을잡고 일른말리
남편드집 극진이 하여라 부부有별
잇섯신이 천정흔 인연으로 비필리
되어시이 ���연일 정고락이 사람의게
달여씨미 만일헝실리 부족흔 한번

눈의나거듬 연팽침을 용납지 못하리이
뉘기을 의지하야 사잔말고 죽은스람
싱곡씨년 쉼의늑 보거이와 손사람
불합하면 일정보연 원슈로드
맛늑면 눈흘기고 못늑물 되잇슬손
남남이 서로맛늑 정을미즈 유별하이
인정이 쓰어지면 남만쏘 못훈이라
익스 후회흔들 옛정을 다시볼궤
업친물리 드시찰궤 쫄익이야 쫄익이야
시집살리 조심하야라 시압이년 하날리요
시엄이년 썩히로드 물이장천 늑푼하늘
썩히엇찌 이기손야 여즈의 제일헝실
유순헝기 웃썸이라 남정의 썩슬바드
미사을 순커히라 식성을 맛초와서
음식을 공경하라 성품늑면 우숨웃고
꾸중늑면 항복하라 더러온것 버릴세라
용열한말 드를세라 한번보고 두번보면
즈연이 눈의늑이 초갓썸이 어린실낭
부딕습게 보지말나 그러하늑 하날리이
진노하면 어럽쏘드 장성한 드른날의
소박하면 괴히하드 하눈임 하눈일을
썩이엇지 막을소궤 여즈궤 강성헝고
남즈가 유약하면 음헝이 자로나고
궤도궤 소식하면 암쌀기 우든말리궤
빈게신명 지양되야 망궤망신 하늑이라
신하궤 충성하면 국궤궤 튼평헝고
안히궤 현절하면 궤도궤 흥성하드
한돈한되 천곡간의 눈을감이 속일손야
바로하드 장담마궤 그런썩도 괴히하야
심복갓치 궤경하며 손임궤치 디접하고
압핍보고 궤름궤고 조심히여 말히여라
제스음식 차릴적의 부정하궤 조심헝고
긴치안인 우숨웃기 어룬압퍼 더욱말라
신을쓸고 짓침하야 진정하야 문을널늑
헝동거지 처신범절 진중헝고 궤히말라
빈방온의 드러궤도 뉘신득기 조심하라
등잔뒤의 온적기와 문틈으로 옛보기늑
소한집 헝실리라 남으집 정기말늑

이웃집 시비하기 남과부디 탄치말나
네몸을 네 ㄱ추워 남이웃게 부디말라
어두운밤 호정출립 불업시난 부디말나
정신을 기다듬아 어른압페 조우지말
선영전의 닐린기명 근직하여 일치말나
그릇시 부족히도 제기닉여 먹지말라
악한말 부디말나 제신명이 히로운이
부모의 쫓친혈육 상치말고 조심히라
회제총신 본을바드 암오조록 비와하라
하드 ㄱ 못히여도 하난이만 ㄱ틀소야
닉나히 육십이라 남편의게 조심커난
화촉동방 첫밤이닉 드를소야 천하의
글른부모 잇싼말론 들럿네 저것네
쇠송어 시집술리 혼돈물은 너도드러
알거이와 드시알게 경계히이 잇씨말고
명심히라 제 ㄱ당초의 시집올제 ㄱ산이
수만지라 안밭중문 소슬디문 사환노비
버러잇소 불리노적 콩노적을 뉘 ㄱ안이
부러히리 시집오든 날의 ㄱ미 문의닉서면서
눈을드러 궁굴이야 횡동거지 히연히드
차담쌍의 허드음식 싱울먹기 괴히하다
무순빅 ㄱ 글리곱타 국마시고 썩쏘국을
집엄집엄 집어먹고 틀름하고 방구우이
덕우닉 히연히다 허드빈직 시비들리
뉘안이 외면히리 횡실더옥 괴히하드
스오일 지닌후의 둠의올나 슳람귀경
문틈으로 엿보기와 마르전의외 춤밧기와
바람씩의 코풀기와 등잔뒤의 불쓰기와
화로전의 불씨기와 얼른말숨 초리돌기
어린오히 춘추적씨 일가친척 이근히기
이웃부인 송보기와 비복빅의 현담거더
일옴는체 시비하기와 횡자초미 불티우기와
고흔의복 질름칠과 제스음식 주전부리
초당딤청 비게서서 이잡기와 들러누워 낫잠자기
달로일코 방자히기 불리일코 악담히기
모흔중의 박장디소 방압페 옷벗씨와
천석군의 부을밧고 굶는사람 송보기와
시부모의 쑤짓는말 악담으로 디담히기

심썰하고 제서방의 쑤진말 포악으로
되담한드 제형실 그러흔심 선인들
잇슬손 인스체면 업써시서 방인들과
일소되는 스람시기후 불붓는것 조와하기
이러듯 형실리 부족하여 너집의
용납지 못하다? 시모상사 맛난후의
문부하고 들러오이 양반의집 그품으로
참아엇지 니칠소? 그럭커만는 안히라고
그산을 익게썸이 저보소 저업펜니
세근술리 하는범절 그소롭싸 닐들안이
동닉인심 못어들씨 썩얼하고 밥을지여
오는사람 더듀기와 이웃집 절문딕과
너도쫓차 나도쫓차 곡식주워 돈을사고
돈을주워 괴기산드 썩은괍이 기을주고
상헌괴기 괴을주고 삼근동옥 간벽장의
어물전이 되약꾸나 식이식이 빗슬바드
빅물흥정 그초한다 밤이면 밤참먹소
나지면 점심먹고 방을 주자흔이
걱정술리 괴롭쏘드 밧삿사랑 늘근시부
숨의나 싱곡할싸 세근술리 못하기는
절통하고 이다롭드 제복잇서 잘살기난
괴뉘리서 시비하리 왜포단 당목이며
무명비필 필리시드 돈을주워 옷슬짓고
곡식주워 마전흔드 죽죽이 싹을지
여자기함 농반다지에 그득그득 너허두고
전곡을 두루훗터 기명도 만컨마는
왜화기며 동화기며 늦동우며 유리벵을
죽죽이 사되러서 삼고의 싸아두고
정일키고 손비비기 무동드러 성조폴리
우리니외 금실족커 지성으로 쌀을주고
조손만코 부귀하게 정성으로 비려주소
도익하라 옷슬주며 중수하라 돈을주며
양돈주고 쾌돈주며 수제주며 중발주며
산의그서 제지닉고 절의가서 불공하기
불초불목 제잘흔이 귀신인들 도와주며
동병이며 풍병이며 이질이며 안질이며
우환이 연첩하니 조상인들 업실손?
박딕흔든 늘근부모 상스흔이 엇씨허리

세근술리 탕피하이 노복인들 잇슬손가
 제스음식 차일씨의 정성업씨 하엿썸니
 제심스 그러하고 서방인들 잇슬손나
 양화가 업실소냐 조손이 쓴너진이
 행용도 망칙하드 양화도 극진하드
 문전옥토 조흔전답 수파하야 니가되고
 크고큰 조흔집이 불리붓터 밧치되고
 턱산긋치 씨힌지를 뉘지물리 디든말그
 원통하드 설울씨고 차목하드 쇠송어미
 단독일신 썸이로드 폐흔빈집 어더들러
 엄신희썸 잇슬손야 드썰러진 보침의의
 이웃집 비러먹네 식벽설리 찬바람의
 이집저집 그며달리 절녹 병신되여
 기침술의 요란하다 불회불목 하든헝실
 역역이 양화바드 복점화음 하는기리
 일오보면 분명하드 쌀익이야 쌀익이야
 시집살리 조심하여 어미헝실 본밧고
 썸송어미 쟁게하여 어엿썸드 쌀익이야
 동동축축 잘하여라 일그친척 의잇기난
 부인의게 달여씨이 행제근의 우익하고
 노복의게 지중하르 빈긋 하논범절
 봉제스와 긋치하르 온히그 헌절하면
 남편의게 늦치난드 아이 꾸지저도
 절노극진 하논이라 남편의 의복음식
 일분인들 방심하라 칠거지악 범치말고
 삼중지의 명심하라 불회불목 혼든말리
 만일흔번 나거듬연 제귀에넌 못들어도
 문여공논 수치사라 양반의 여조되야
 엿지아이 조심하리 제일신의 수치스르도
 남편신명 썸기논이 남편신명 썸길진딘
 부모의 망신이라 부모회헝 웃썸이요
 남편디접 조심하라

生竊惟芦田捉鱖鱖筐旣失楮田耕舌徒受其困生訓蒙茲土今見學徒父之困
 辱駢逐便作絕纒之儂儂畫出之魍魎皮直日月敢陳荒蕪之辭陳此憤痛
 之情伏願閣下垂憐採納馬生本朗州士人少負才芸之聖長計功名之志洛
 橋青雲客呼朋嘖儂紅塵紫陌羣握手追睺十年京華束橐告罄百戰
 科場富貴云遠碧桃紅杏別洛陽之春風黑貂青袍灑清灑之餘淚故來
 下土行色崎嶇聚童村齋兒飯誘食說 卜 山堂窮命是救太古天皇氏朝

夕間之計活花笑檻前聲岁月過之生涯童之鈍冠之迷是教是訓煙霧
 起於胸中召文之深言之難且語且喻荊棘生於口中五合料兩時食書腹
 屢空一單衣四節服客虱長文形如霸筮之鷹狀如牢籠之鸚一年三百六十
 日不敢懈怠以盡在我之徒 ∞ 徒以聖每名下一石祖也其祖所謂礼祖也古
 人束脩五定之禮而弟子礼而進之則先生礼而受之在湖在嶺下处不然夫
 何此村多詐漢輩無知學徒父之中所謂金其人者公然倡爲駢逐之計金僉
 知呂僉知面措揮朴書房李書房人謀議他官兩班客地生員駢逐何
 狀衣資半兩礼祖一石不給何事噫顧此顧客之情狀落文村弱子庾妻
 啼飢呼寒曰岁新正祖上先靈聖烟而嘯風人情情岁客懷懷憤到此不已
 發言求息則渠等相笑相視冷然爲答曰彼兩班此兩班物情不知世情不知
 時節如此時價如此衣資何說礼租何事千里行商空鞭而啟一年雇工赤手而
 去生員文價幾何生員文價何以異於癸巳年之皮遭笠仔防川末之頭籠
 而價如是如彼恐喝無數平坐起生漸進聰甘吐之半岸蚌螺拳之怒掌
 視其氣色似有 ∞ 敗駢擊之狀矣畏其景色笑而答曰喻唯唯誠爲君輩之
 言吾言妄發矣如是如彼謹兌其患等說嗚呼首陽蕨不可以饒飢於
 陵李未可以充 ∞ 洪儒碩士窮困年老或客爲之而不意見此困辱之變也
 設使渠等無其錢無其租空乏取貸則生 ∞ 終岁舌耕白手空故不女
 强索今夫僉知錢穀陳陳招官把聰財物盈盈松陰 ∞ 化助僧苛勸善而
 請施助則一兩錢二兩錢快許而不惜成佛菴土熏女撞小鼓而唱念佛則一
 石租二石租闊手而不吝至於訓礼先生薄之如此待之如此世道之衰歟
 士道之衰歟

周易序

易變易也隨時變易以從道也其爲書也廣大悉備將以順性命王理通幽
 明之故盡事物之情而示開物成務之道也聖人之憂患後世可謂至矣去古雖
 遠遺經尙存然而前儒失意以傳言後學誦言而忘味自秦而下盖無
 傳矣予生寸載之後憚斯文之湮晦將俾後人訟流而求源此傳所以作也易
 有聖人之道四焉以言者尙辭以動者尙其變以制器者尙其象以卜筮者尙
 其占吉凶消長之理進退存亡之道備於辭惟辭考卦可以知變象其占在
 其中矣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動則觀其變而玩其占得於辭不 ∞
 其意者有矣未有不得於辭而能通其意者也至微者理也至著者象也
 體用一源顯微無間觀會通以行其典禮則辭無所不備故善學者求言省
 近易於近者非知言者也予所傳者辭也由辭以得其意則在乎人焉有宋元
 符二年己卯正月庚申河南程灝正淑序

이미지

이미지

石令三百九字丙寅一百五十八字丑六十五

易五字變五字也十字以十一字道四字其十四字將二字之十字故二字而八字物二字

聖二字人四字後四字可二字至三字矣四字傳四字言五字所三字者士一字尙
四字焉二字辭九字象四字占三字存二字於四字則四字觀三字得三字不三字通三字源二字理三字備三字求
二字近二字無三字予二字意四字
學二字自二字在二字有四字玩二字知二字動二字微二字

銅仙眞言

太上曰皇天生皇地載我日月照我星辰映我諸仙舉我司命與我太乙任我
玉神招我三官輔我五帝佑我北辰相我南斗助我金童侍我玉女配我六甲直
我六丁鎮我天門開我地戶通我山澤容我江河渡我風雨送我雷霆隨我八
卦遵我九宮遁我陰陽從我五行扶我四時成我阿明著我太清玄籍三宮
并降上下往來無窮不息金飯玉將水向日皆至虛範日月與天爲誓銀豹
星毳飛雀宝∞所求者得所向者亨所爲者合所欲者成種種變化与
都合神何神不服何令不行前有朱雀後有玄武左有青龍右有白虎
上頂華盖下足躡魁罡神通光叩威振∞∞凌我者生惡我者殃謀我∞
死憎我者亡靈神童神女破碎鐵剛三千六百常在我傍執節奉符與我
同遊太上捉我慶天大吉昌二十四符與星曆俱唵唵唵如律令∞∞
有極無極有貞有一天動之後地定地定之後人生人生之後心貞天爲日月星
辰之君地爲山川草木之君人爲利欲是非之君君者心也心者天也半畝方
塘天心私情一寸前丹前天性∞舍序己才之中惟人最貴万物之中
惟人最靈私不犯正妖水勝德天集私鬼私鬼自滅誦伏羲氏之先天
誦文王之後天凡周公之誠心凡孔子之仁心天皇以是傳之地皇皇以是
傳之人皇人皇以是傳之三皇五帝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凡七十二賢諸
惡遠鬼猛獸一體消滅

高王經

觀世音菩薩南無佛南無法南無僧佛國有緣佛法相因常樂我淨有
緣佛法南無廣呵盤若波羅密是大神呪南無廣訶般若波羅密是大明
呪南無廣訶般若波羅密是無上呪南無廣訶般若波羅密是無寺呪
南無淨光秘密佛法藏佛師子孔神足幽王佛佛告頂彌登王佛法護佛
金剛杖師子遊戲佛寶勝佛神通佛藥師琉璃光佛巽光功德山王
佛善住功德宝王佛過去七佛未來覽劫千佛千五百佛万五千佛五百花
勝佛百億金剛藏佛定光佛六方六佛名号東方宝光月殿妙尊音王
佛南無樹根花王佛西方曹王神通念花王佛北方月殿清淨佛上方安
數情進宝樹佛下方善寂月音王佛女辛量諸佛多舜佛料迦牟尼佛彌
勒佛阿閼佛彌他佛中央一功象生在佛土界中者行住於地土及在虛空
中慈憂於一功衆生各令安隱体息晝夜修持身心常求誦此經能滅生
死若消伏於毒害南無大明觀世音觀明觀世音高明觀世音開明觀世音∞
王菩薩藥上菩薩文殊菩薩巽賢菩薩虛空藏菩薩清涼山一万菩

薩巽光如來化勝菩薩念念誦此渴七佛世尊即說呪曰難波難帝求
 訶求訶帝∞羅尼帝尼羅帝毗難尼帝摩訶迦帝其寧獨帝沙波訶
 十方觀世音一功諸菩薩誓願救衆生稱名悉解脫若有薄福者慇懃爲
 解脫但是有因緣讀誦口不輟誦經滿千遍念念心不絕火燄不能傷刀兵燄摧
 折志怒生歡喜死者變成活莫言此是虛諸不妄說高王觀世音能救
 諸若厄臨危急難中諸事得解脫拜念八菩薩持誦滿千遍薄福不
 信者重罪皆消滅諸佛語不虛是故應頂禮八大菩薩摩阿薩∞無觀
 世音菩薩南無巽賢菩薩南無彌勒菩薩南無虛空藏菩薩南無地藏
 菩薩南無除障菩薩南無妙吉祥菩薩南無金剛樹菩薩南無十六大
 阿羅漢聖象南無阿彌陀佛觀世音菩薩

孔子與七歲兒問答

孔子名丘字仲尼魯人也率弟子乘車而出見諸兒遊戲之中有一兒獨席
 而坐孔子曰汝何獨不遊戲耶童曰遊戲之事無益於身矣一則傷身二則傷
 衣三則上貽辱於父母下見責於兄長且有相鬪爭詰之事勞而無益莫大
 烏故不爲也又以∞尼築城於路孔子曰爾何不避吾車而築乎童曰車避
 城乎城避車乎吾聞車避城而未聞城避車也孔子奇之下車而問曰汝尙幼
 釋何其詐也童曰人生三岁可別父母猪生三日可超田畝魚生三日亦浮水上此天地
 自然之理也何謂詐也孔子曰汝在何邑姓名云誰字亦釋何童曰貴邑華族
 貧家之子姓頃名鐸年今七岁姑無字也孔子曰汝從我東去遊之如何童曰家
 有嚴父可以事之家有慈母可以養之家有賢兄可以敬之家有幼弟可以教
 之家有賢師可以學之何從遠方遊乎孔子曰吾車之傍有酒蟲汝能飲
 乎童曰王者好酒則國以亡大夫好酒則家以亡儒者軒酒則業∞鐵庶人好
 酒則身以亡酒之爲害莫大烏故不飲也孔子曰吾車之中有三十二包博與
 我同者乎童曰王者好博則政以怠大夫好博則家以∞庶人好博則業以
 廢博之爲害莫大烏故不著也孔子曰將欲天平天下何以僞之童曰山高
 水深人亦有貴賤何以平天下乎山平獸無永水填魚無生無貴人是非不
 可定矣無賤人莫養君子矣孔子曰何火無烟何水無魚何山無石何木無
 枝何人無父何男無妻何女無夫何牛無∞何馬無驅何人爲君子何人爲人
 何日不足何日有餘何城無主何人無子童曰螢火無烟井水無魚土山無石
 枯木無枝偶人無父仙人無妻玉女無夫土牛無∞竹馬無駒賢人爲君子惡人爲小
 人冬日不足夏日有餘虛城無主釋兒安子孔子曰天地陰陽終始可以知之乎
 何爲男何爲女何爲前何爲∞風何飲而兩何來雲從何處起∞初從何所出天
 地相去幾萬里也童曰九九乃天地之紀綱八八乃陰陽之終始也天爲父∞爲母日
 爲男月爲女東爲左西爲右南爲前北爲後風從蒼梧而起兩自崑崗而來雲從山
 而起霧從地而出天地相去九百里也東西南北自此定矣孔子曰父母∞夫婦孰
 重童曰父母天倫之重也夫婦二姓之合也人無父母何生也夫婦比之則如車之兩
 輪也車之無輪可以更造人之妻死亦可以更娶況父母之於子敏劬勞生育恩

莫大烏衣之食之受莫重烏則夫婦之情何化父母之恩義乎孔子曰美哉童子之言是也童曰夫子有問於鋒故猥自以對敢請夫子明以教○賜○鴨何以能浮水鴻鴈何以能善鳴松柏何以青於冬乎孔子曰鳴鴈之鵝鴨之能浮水以足之廣也鴻鴈之能善鳴以頸之長也松柏之能青冬以肉之實也童曰魚有何足之廣而能浮水蛙有何頸之長而能善鳴竹有何肉之實而能青於冬也孔子無答烏童又問曰天上星數幾何孔子曰可以言地上事何以言天之事乎童曰然則地上人家數幾何孔子曰可以言同前之事何以言遠方之事乎童曰然則夫子之眉數幾何孔子無○答之曰若汝○与爲言後生可畏正謂此也

魯庵朴公行狀 野老李淳

有明朝鮮國資憲大夫經筵義禁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

文館副提學朴公行狀

公諱潤卿字君潭号魯庵姓朴氏本貫忠清道文義

朴氏密城著姓本密城君之後在高麗有貞齋文顯公諱宜中以政承封文義君其後子孫文義爲貫公之中祖有諱衍政堂文學平章事號蒼厓有諱允成門下侍中於公五世祖也有諱台俊通訓判事有諱○宣教卽有諱之茂承議卽通禮門通贊有諱世延成均進士夫人星山李氏進士公天真夷曠惻愍無華不失赤子之心從事改學而自尙州始十二厓星州東面般魯谷里家行有度子男一人卽公也公以我 成廟十年成化己亥某月日生於魯谷里第幼類秀異嬉戲非凡嘗見者奇之以爲遠大之兄矣始教文字日覺進取一味讀書便能領解侍坐師側聞見益廣而出入於寒 暄先生之門當時士友群賢以爲推重焉弘法甲子中進士第我中廟八年正德癸酉登魁甲科第卽拜弘文館正字傑拜修撰上䟽不國允就職入侍講○迂成均館典籍又移拜校理修撰又迂吏兵兩曹○節轉○幣○檢○金人左迂宜寧縣監治尙廉直專以平易溫怒爲主惻恒受物之心謁然見於色辭蒞事必以法而曲盡人情樂善好賢礼遇士類及其通故之後築精舍於道高之下名之曰魯庵書齋聚書呼朋講學樂道一如處尙之賢士大夫之處於州境者必待以礼而推誠相與窮理之事而其爲主敬工夫實爲本領也復召八朝拜執義又拜應教丁丑八月日与弘文館幅提學金淨請寒暄堂金先生隆爵尊諡從祀 文廟陳 䟽又傑拜承昔又拜直提學迂成均館大司諫大司成與靜庵趙先生入侍○中講論寒暄先生主敬之學戊寅拜弘文館幅提學入侍○中己卯十月十五日北門之禍起同僚群賢幾爲照律杖流公以提學上䟽亦救諸賢之○而終不蒙允又知其三好之凶毒福及其身飲退丘園杜門層跡脫灑世累存心券性於魯庵精厓之中而得兌其禍一時士友諸賢敬脫其明哲曲嘉靖○○八月三十日卒享年四十九葬於州東般南道高山白虎先君進士公同下兌坐之原公之天性至孝事親盡其孝事君盡其忠一○○大主於敬字上着力而入則從弟樂志享公講義論道怡怡如也出則與靜庵冲庵諸先生功磋琢磨有麗澤

之益而竟未兌齋志身後子孫洞殘又值亂難兵燹之禍盡傳無考功未克就嗚呼公儕二品德冷人心行範族黨而閭巷差念行路指說則公之德行如彼其至矣而遺業顧落落如是哉余以謹採先輩之語及其後裔之狀錄書其世系歷官行事之實處世存心券性制行三事略敘梗槩焉萬曆行蹟 見京山志 判書李元楨

朴潤卿字君潭號魯庵系出文義祖之茂通贊父世延成均進士配縣監李約存之女成化己亥生弘法甲子中司馬正德癸酉登文科始仕承文院教授芸文館檢閱擢拜弘文正字歷典籍正言吏兵曹佐即宜寧縣監修撰校理文學舍人執義由直提學傑拜承旨歷大司諫幅提學靖丁亥以疾卒于京城藏義洞之私第明年返葬于州東內谷村性嚴毅況重人不敢干以私識量高遠先識其將然[○]生員趙恢女萬曆中卿人議祭于杜而終未果焉

祭文 從弟樂志亭彥誠

嗚呼通哉惟公宣道山之淑氣兮鍾德谷之精靈奉先君之至孝兮承暄翁之主敬淵源學兮義方兮實有得於先正誠孝顯於廬墓兮德業成於源行如金玉之美質兮抱襟懷於胸中才芸偉兮按華兮聲譽登於京卿早登捷乎蓮桂兮如拾芥之簪纓位儕[○]於二品兮羽儀翼於王庭封疏削之愚到兮尊先師之至誠憂北門之禍起兮救諸賢之奉章嗟不遇兮明時兮配千里兮終城晉塗擗兮塞諫[○]緣成疾兮道窮婆娑[○]兮林泉兮魯庵[○]兮倘佯精仁熟兮敬意兮惟德哭之天成悅親戚之情話兮哀余弟兮追[○]恩誼並兮鳩鵲兮同堪樂兮成雙分屨難兮南北兮查陶思兮星尚此平生之情篤兮期百年之相從天胡集其斯速兮竟不遺乎吾兄嗟訃音之忽到兮哀金心兮如墜巷閭悲兮鄉悼兮續士反之共呼長痛兮痛哭兮万事違兮荒涼千里外兮旅櫬兮實有感於幽明殲歌起兮前路兮群僚哭其送終淒涼兮一曲兮哀弟痛兮無窮綴荒辭兮痛哭兮萬古決於單觴惟精靈之不昧兮庶幾來兮欽降嗚呼痛哉

墓誌 梧月[○]都翰國

公諱潤卿字君澤号魯庵文義人高麗政丞文顯公貞齋諱宜中之後孫也會祖諱[○]宣教則祖諱之茂承議即通禮門通贊考諱世延成均進士公目尚州梁山來居星州東面般南曾谷村而從事文學鄉閭稱為公以成化十年我成廟己亥生于魯谷里第弘治甲子進士正[○]癸酉文科即拜正言又拜吏兵曹佐即移拜校理修撰出宰宜寧縣監入為檢詳舍人[○]拜承首又拜直提學司諫院大司諫大司成移排幅提學嘉靖丁亥八月三十日卒于京城明年戊子返葬于星州東面般南魯谷[○]洞先考進士公同下兌坐之原公性本孝友廬同三年終身展謁廟廷有痕早遊寒暄熟復敬義淵源有自學問純備尊師陳疏靜翁推許為賢辨誣冲翁並疏歛退丘園業垂道山遐享公議萬曆甲辰緣何世故遺 馨未遂猶歎朴公永世不謏公之後孫興文同誌請於余余曾在崇禎壬申與朴國老鄭季膺諸益注拜玉山來

遊道山而欽佈叫公之學行只誦李野老之略棟其梗槩以藏于幽室焉崇禎后壬寅三月口星州都翰國誌

題道山 前人

魯庵遺蹟佛高山臺石依然指點間後學百年景[○]地竹聲磨月到牕園

神道碑銘 學淵朴震考

余嘗讀吾鄉先賢之事蹟已知魯庵朴公之誠孝至行德業高明猶有羹牆之慕而猶恨未得其祥矣公之后孫[○]以其野老李公撰公之狀文一都請於余曰吾先祖棄世百有三十餘年神道碑銘至今久闕顯刻似若有待夷以責[○]之文震者既累辭不復則取狀讀之記載[○]詳於略野老李公之文而其悅服稱道之盛以爲悼史而可徵信於後世矣又奚用贅爲謹按公諱潤卿字君潭号魯庵密城君諱彥孚之后也中祖文顯公諱宜中以高麗政丞封文義君其后子孫以文義爲貫而世居尙州梁山旨之地而高祖諱台候通訓判事曾祖諱[○]宜教卽祖諱之茂承議卽通禮門通贊考諱世延成均進士天資夷曠從事文學而自尙州來禹星州東面般南魯谷村因家焉夫人星山李氏縣監存約女公以成化十年成廟己亥某月日生天性溫粹幼類秀[○]好學明辨便能領解自弱冠之州出入於寒暄先生之間聞見益明主敬工夫日用尙事而怠慢之容未嘗進庭定省之際必誠溫清侍側之州必敬愉色養志先務而及其親沒執喪之日血淚不乾於庐同哀毀逾禮闋制以後辰謁廟庭一如晨昏之禮其誠孝實至此矣弘治十六年燕山甲子進士正德八年中廟癸酉又捷文科第卽拜弘文正字正言又拜吏兵佐卽又拜校理修撰入侍講筵出宰宜寧縣監治尙廉直禮遇士友有君子風焉復召入朝拜執義又拜檢評舍人拜弘文館應教入侍朝講與冲庵金靜請寒暄先生隆爵尊譜上[○][○]拜承旨又拜直提學迂成均館大司成司諫院大司諫入侍遙中以親君子遠小人存心券性之說矣未幾北門之禍起同僚群賢誅[○]而公累啓辨誣說憂忿成疾退而自守身處江湖積年調病之中心縣衆魏每岁元朝正衣冠北面四拜嘉靖丁亥復召拜副題學入侍遙中以靜庵伸[○]事連疏[○]疾是岁八月三十日卒于京城明年戊子返葬于先塋下兌生之原公之稟賦絕人氣寧溫粹熟復敬義忠[○]而至穷理之功造次不難而入與從弟樂志公務講劇之義出身冲病靜庵[○]先生有功磋之益而必將有爲於世而晋塗方闢賊機猝發憂忿自退位不過三品壽不滿德寧不爲世道之憾歟噫公之入侍 遙中之事實平生嘉言善行之可傳此多而文籍盡入於兵燹之中只有野老李公之文而又有立同[○][○]之議則公之令德久而益章矣銘曰誠篤至孝百行之首淵源心學一敬字主尊師隆譜冲翁並疏講論主敬靜老推許直道事君忠諫抗義忿微對疏爲賢辨誣舌拒群好忠貫天地眷懷林壑婆娑千載憂忿餘日道享業垂卓彼道山儒林景似万曆中年立祠公議因何世故遺[○][○]未遂雲根斷立出光載團有斐君子永世不諼崇禎后癸卯二月上院進士密陽朴震者撰

行錄追[○] 都命應

魯庵朴公我中廟朝名賢也公之后孫守一請於金而痛泣曰吾先祖魯庵公非當世之聞人也後世之表師而子孫零替洞殘又值[○]蛇兵燹之禍先祖之遺稿盡失而後只有野老李公判書撰公之行錄一部學淵難士朴公之文則後裔之追入悅恨慟莫甚矣願爲追稱其

이미지

이미지

狀末云爾則噫賢之筆狀魯庵公之行而傳示永世者是何等事而余敢容筆於其文之續乎觀其諸[○]文文則公之德業之[○]行事蹟之首末已備而可知其諸賢人誥所以[○]稱道也盛矣其文[○]曰幼穎秀異嗜戲非凡言其稟受之秀異也有曰始教文字日覺進取一味讀之便能領解言其才芸之援華也有日出入於寒暄先生之門言其學問之淵[○]也其曰魯庵之齋之中[○]敬工夫言其正心之本領也其曰甲子進士癸酉文科言其科第之重試也其曰弘文正字舍人提學言其位儕之二品也其曰與靜庵先生講論主敬之學言其琢磨之功磋也其曰與冲庵先生清寒暄先生隆爵尊譜從祀文廟陣疏言其尊師之至義也力救同僚辨誣跡言其群賢之[○]抑也知三好之凶毒知止而斂退言其保身之明哲也其爲憂念成疾天不憖遺士友共呼巷閭嗟念則痛其位壽之不滿也其爲鄉有立祠俎豆之議則言其儒林之景也舉此諸賢之文而領倉則公之德業實行庶幾盡之矣公之遺稿雖不保於兵火之中惟此諸賢之文若不復墜矣而[○]行則後之知[○]考觀狀錄足以知公之[○]行而公之志亦可以花於後永世不浚矣余以不副守一之請遂補誦諸賢之文以明諸賢之志即因附而賤所聞略於其末上之五年庚子季我上院星山都命石識

魯庵之齊重修事[○]

魯庵之齊在卽車二十里許般南方魯村之上卽副提學魯庵朴公之之齊也歲甲辰[○]魯庵十世宗[○]春[○]不豚感[○]之心重修曰齊而齊之者皮事[○]諸於余不以文拙辭收掇其李野老朴學淵浪賢之久略陣棟槩[○]噫魯庵齊舍之主峯乃是龍高山而德領爲其白虎義峴爲[○]青龍仁縣在其化洛水迥[○]車流其中幽而深廊而有容其葱龍陌琥眞不讓於古之盤谷其清秀爽皚亦不下於白鹿洞累而龍[○]仁義之地名偶相符合矣在昔止[○]某年魯庵公最受其景物之奇掌自宜寧縣溫遞故之後攘則而新之經始而就之齊九矣君子攸宇之地而名之曰魯庵齊潛心聖賢講習學文出則與靜庵冲庵諸先生有麗漈之益入則與從弟樂志亭先生居此齊而講龍怡如也而其主敬[○]日用常事則是齊之遺蹟永世遵守而嗟夫龍蛇之變[○]入兵燹曰蹟蕩然當日記文題當微躅竟故於[○]劫之魔後裔之追以慨恨當如何哉其后子孫重創於臼塘而[○]雲盤石明龍盤岩眞立依曰依務學臺地江山風咏之所完然如[○]而其後孫零替調殘更不修治遂使講樹詩社空作草設烟鎖之域而先賢之

風旨遺躅日就埋沒而徒爲甫條而已可勝慨然嗚乎魯庵公至孝之誠
正之學輝揚於諸賢之文其立祠殂豆之公議有見於京山誌其學業之遺蹟
復明於君之重修之日處學之尊賢尙入此洞此齊而景則魯庵公
之遺業不泯於世矣不偉女休載丙午二月下瀚星節都尙極識

洛窩集

丁酉山訟記道光十七年十月日洛窩朴燕成記字景養 乙丑六月二十三日卒戊午六月 吾享年五十四

州東二十里有龍高山卽鈴山來脉也自鈴車走爲禪石山又東是爲月岩峴又車

又是山山形穴凡層巖疊石有奇有不可形而有而石窟可藏數十人爲

本節之有名山也下有魯村南有嶺嶺外有矣王車有進峴北有退谷

이미지

이미지

而谷外有岐山里卽仁同地也前有大江卽洛東江也猗歟美哉是山也何

其有似乎君子道德進退之義周岐閩洛之淵源而得此名也山自庚兌

辛兌三屈回岩石之下有曰場鎖卽眞穴而其上有印岩帽岩竜石穴下有明

泉冬溫夏冷穴右挾有道高庵卽古安樂窩而卽我克祖副提學晴

拜公講學之址也秘記有曰州東二十里有將軍對坐形其上三岩穴下有明

泉前有大江大路此其地歟武曰將軍領兵渡江形武曰將軍按劍形

未知孰是而謂之按劍以其有江左舞劍山也是穴也有及三代武相之語自

古有名故仁同金彭孫偷窆而自官卽掘其後本節南回法林沈元浩富饒多

族迎致全羅道地師金恢數三年未山適乘夜偷窆而因爲掩跡送地師

至四五百金矣推尋處沈哥卽爲落課延挖挖不掘每月三四訟如是四年如干

宗物蕩無餘先山香火久闕末乃仍渠呈營而自官降丁軍布者三人矣嚴治

因禁處渠自掘去성則先父兄積功累爲如何哉埋表其穴而余以弱冠

或參沆於伊州訟庭知之洋見之熟矣余於庚寅之十月書挾書登禪石寺夜讀書

述而限臘晦下來矣適於十一日初言雨雪霏霏急風大作忽有啟省之脉斗

起難某甲衣足下亟則親瘠危劇幾不能蘇此蔡寺時先人戒日勿爲

歸意臘晦遠命戒申復故欲爲州而以其如功禁止之矣到此隱

得恃湯藥未以隱聽貴遞倉天地罔極況復終之後紫巫總

三金而宿債喪使冷爲百五十學皆曰賣巫舍更点蝸屋以爲

保全之計余曰一門室惟而已昂者与亟眷何迨哉言者皆止方

捧葬地而山山山地皆不入眼方憂之除宗亟三從叔父兄弟許以

曰埋表之地曰汝先人積功之所也他日吾輩死處恐爲他人所原量非處日子

孫之一大憂慮處因遵教營窆之則柒荅車西面僮李氏以巨富多族

七十餘人並耳某葬盖日金沈西漢相訟時非徒一助周力而宿無影鄉音

矣今乃称以渠之先山主龍而耳禁氏溪侮吾家之寡弱將有觀觀意也

是日欲爲行喪一儕禁斷故呈營宝官畵形尺量對下其內訟官卽申

常顯氏以學行花名當世矣抱積軸文卷與埋表誌石而校秦事理則

彼臭卽爲落課明當襄禮而大雪丈餘人力無奈將當日行喪[○] 詎李誘
[○] 得捷之畧形於宗長而欲爲伐喪季父[○] 乘夜踏丈雪冒大風入叩官門
 則本官大擎卽發將差有結縛詎李俾以安葬之令則皆稍稍亡去卽爲
 行喪遂經衰礼其^{○○} 乞諸李歡好如明矣處七年丙申亥余移居樹
 村之再從兄死而其妻娣李葬埋于李光益先山之腦頭卽與相訟落果
 當握而埋葬之時則八月也余赴金山試所敢則已葬云心其非之是年
 十一月彼臭不待自握而輕先冒握越明年丁酉三月三形已具付送本
 邑發配于關東之春川所謂光益以其路貴難辨而謀誘其宗人曰
 今掘某之親山則揆以法理一形後還送本配所路資自大宗中辨出
 如何知事老成者責以非理狂悖年少輩勸之卽冒掘余之親山時余
 出外而人則人滿山處問於樵夫則云云方率軍丁土龕矣蒼黃上去欲
 氣窒欲問臆塞朽棺敗板左右木屑編滿山處憤忿不忍生死莫辨
 卽苟亾提鋤而大呼曰來汝軍丁暇使余非理抑葬於他人守護當禁
 之他而遞遭此變則無所逃罪而今受宗孫之許諾得捷訟官之法理
 葬於十三代守護之地完父兄積功之所而橫羅池魚之殃遭此罔側之辱則
 吾其食息苟活於天地間乎此洞之李塚莫非余先嫌宿怨則無論彼此
 一併掘去廓清我先山局內而後已汝其咸來司力掘去有或浚巡畏避氏卽
 欲杖打則無遺畢來卽掘光益之父塚出棺精次委轉以鋤削去棺邊
 對報而又握其下年久三塚止毀其封築而飢乏轉甚夕餐後并握爲計矣
 慈主期於禁斷不得已下家方乘夜募軍掘去而又固禁止盖慮其罪
 益加重婦人之心愛子之情也彼[○] 先呈中夜將差來叩叔侄并往赴邑
 是時本官吳顯常覲行上京兼官則高灵也官曰李哥狀內叔侄并握云
 誰其握乎叔父曰民自握之余曰無子則已有子則子報父讎握塚氏非叔
 也乃民也官曰叔侄并相自握推以亟庭極[○] 好風僞而法理[○] 不然叔侄亦[○]
 可哀可哀因并招報營叔父與彼[○] 因之於獄余則因於長房盖叔父之意則奉
 祀宗侄有難遠配而自家則無此所重故憫惻之極爲此言耳子弟幼釋無人監
 後而豨水南面四從兄通仲氏馳往柒谷訴其私往定配罪人復使冒掘之由後女
 兒死而收埋之矣余自是出入營邑與本亟凡女具盤則小施苟且之患也營題到
 付自高灵之形推事當稱疾不往而余意無兄弟豨子納續不配裁在法典故從
 速具刑以爲放還之計故告諸宿主并往高灵則先刑叔父與彼[○] 後刑余而刑
 極慘酷矣卽日束[○] 到來本邑後本官下來更爲摘奸取招矣營題再到又并
 叔侄而至於并配余以營因或托而至親或以門狀或私狀江水漲溢之時至於七呈
 而營題始以叔父還收遲脫一款幸矣是時余女兒十一岁將死累累呼父而天云
 是夜陰兩霏霏昏黑如柒冒雨越嶺至於埋處呼其名曰汝父今來情極
 慘矣因故家則家人[○] 其昏眸一啼一笑如逢再生之人明日人邑如是者數矣
 沒家寶急至慈主遞以柒疫方痛[○] 人以八朔原婦累日亦[○] 長女阿小兒渾
 室柒痛惟世兒時以十三岁具粥飲云聞極驚惶緣由呈官則放叔父救病余亦憂
 慮更訴則將報營營題待其母病差後還囚報來因還人外扉孕婦喘息之

聲如雷如鉅先八親堂則昏昏不省諸子女痛之方函後人上房則非徒不省而腹与唯項一聳一低如匠之業風矣四求所汗之藥而無校明日慈主流汗卽愈諸病兒次次落汗而孕婦則救洛無路徒功臆塞叔侄奔走四方廣求梧魚濃煎而以木著開口而頻頻流下第八日鷄鳴初卽產而始出聲一呼曰今日後我生矣因開目含口若永逝命脉一处微有溫氣而已益求廣梧魚開口流下如是一晝一夜命道始通然便是死人非如生者也產兒數次啼卫而死四五日後始省人事臂左又生大腫如行蛇形自五月初至六月晦始 ∞ 索而習步矣卽八官受刑余亦病不受刑而定配黃海道遂安縣彼隻更配平安道熙川縣余以狒子納贖不配之意呈營則考籍報來而以親年末七十不許故六七次呈營至於許贖卽營改葬之意議送而放 ∞ 求山則地師皆曰此世可葬之地四求難得觀此地則卽主人自先世禁護積功之所也今雖被池魚之殃而見掘然人皆以彼隻爲妄悖怪物先祖遺地雖被橫辱決非讎也更葬何妨乎且万 ∞ 易 ∞ 而如此名穴當此難 ∞ 云余亦本意如是遂決定捧日而想必官營皆以更葬被握之地爲非理必欲 ∞ 移遠爲送配故余意寧爲遠配期於更葬遂更呈營曰貧乏無錢無以納 ∞ 依例嚴配之下營吏一怨一笑本官亦痛惜而責之其後托以慈主 ∞ 情累次呈營曰年近七十狒子遠 ∞ 則無以通母子消息願更近定配所而大抵配所之改定近地有國以來所無之法也至於六呈不許未乃慈主率老婢躬注營門適於 ∞ 賀礼時呈狀則更定湖西木川縣 ∞ 三王 ∞ 也此 ∞ 巡楓公尹成大有 ∞ 寬厚故有此改配所矣遂下前一穴而葬七月二十四日也余意又謂若 ∞ 不配發營官必因彼呈握去配送故明日卽訴發行則定將校發配矣然 ∞ 故亟留延治行發程八月巾也母子夫婦父子相別時情勢有甚死別尙忍言哉至清節態洞酒店有一美女年可三十餘婆色絕倫爲店嫗卜筮而對盤水執筮筮誦祝辭皆當正理筮畢長烟竹團扇遮面初若落落難言良久女子先語田觀其貌色必文士也能吟咏乎余曰我本無識不知吟咏女曰無讓然非庭試之行必定配之行余驚曰當此大北之日方欲立揚而少年風流豈有此行乎女曰五已知之余曰知相人乎曰否知吟咏乎曰然妾本披州女也姓辛名春晉知時賦出入科場能捷大小科者多矣因贈曰傾盃恃然惜別情千里浮雲亦吾愁八月難家故不故吳山楚水夜依依余觀其吟雖違音 ∞ 詩句甚住心 ∞ 灑落因唱 ∞ 意二字無留助答曰步步行到处山 ∞ 嗅清音可笑風灯世誰識女子心余沈吟良久曰吾今戲答能無怒擠乎女曰文士文女邂逅相逢亦一住緣不宜有怒也余咏曰嶺客遊湖僞千里少知音路逢花一 ∞ 狂 ∞ 浪費心女拍肩而笑曰眞丈夫也因以勸酒朝而逢暮而別女勸留宿余固辭發程以其限清節府丙宿所也女曰吾雖女子再握再謫之人習知謫居之精狀觀書房主之少年風光謫居風霜眞可以令人涕淚潛然送之一里許登山贈別泣涕漣漣余亦悲愴而別此實可怪可奇故并書題木載之耳因到木川定主人則主人亦良善供饋接待甚恭因知府車李承旨礼延家會經濟節收當節日悲懷倍常有許多吟咏不可房記方欲篤工而府戶長

請教其子侄固辭以其 ∞ 賤舌耕世也戶長通媒子李承旨承旨 ∞ 次勸導曰
 謫中行 ∞ 有疾病何爲衣服何爲善爲自處之道余亦辭 ∞ 一戶長至於五六次
 勸擊金不獲已遂許八其亟九月 ∞ 一日也余 ∞ 嗜酒主人磨練一日四巡蓋木
 川本無燒酒而只用合酒其味甲於八道朝夕供饋雖本官蔑以加矣是月赦
 差遜邑不任 ∞ 查將欲上京的知赦不赦則主人謂以皇赦無益悅之甚固將
 發程主人至 ∞ 衣服遂以平服發行至 ∞ 里乃送衣服至京拙時岩浦李黃
 山方在吏曹卽卽訪吏曹問於下吏則今方下 ∞ 故留本館卽訪留宿問曰
 近日刑曹卽武知之乎曰平安道父官者爲刑卽有一人 ∞ 之矣近武改遞否耶
 遂同訪昌寧成都正則亦曰不處黃山曰吾亦謫居永同邑習知其事雖小赦
 私握罪人無不被放亦先關文自去仗介仗生何關於皇赦乎因賜銅一緡召刑
 曹執礼足月吏施情而入於赦文因故訪於龍問李注書義俊亭亟申勤付 ∞
 還故木川時則十月 ∞ 也越十一月 ∞ 七七赦久來到主人隱而不見門謫之人黃海道
 遂 ∞ 韓享 ∞ 亟來握手喜告之乃知之日主人清浪岁 ∞ 留赦余
 固辭明日方對朝餐主人又請之余不應主人怒形於色悖語及之余亦忽然
 曰朝家赦遠誰其挽之乎西佰留之乎本官能之乎因責之甚拒主人乃謝過
 請留數日余不以已乃辭於 ∞ 口相知氏與李承旨故 ∞ 十三學童次次進別床
 需眞所食前方丈珍羞別味所未見知氏多矣明日亦然越三日午處發行
 受業諸蒙送至五里許涕泣而別余亦含淚辭之所歷店朝夕闕然莫食以
 其肉食之故遂故亟其喜可掬家人謫行之處彼隻呈子營本反題音至嚴
 皆以遠亟官掘云余曰不必再謫雖老於本邑獄中無畏矣風霜草木豈畏
 歲寒乎彼亦寂然不呈吳城主遞故申在敦新下車越明年二月始呈至於三四
 巡推之不入以出兒方張故也救之至於活境而方入抱前後文卷先彼入官又口
 達曉詳則彼隻亦彼官責落果矣越三日巡相到邑余又呈狀則題以兩
 相遠對可謂安 ∞ 之意責彼隻之更起 ∞ 之落果益光益只移葬其父而其
 餘三濛遠對故也其在謫所有追懷序其宥遠主人請謝息序并記于處

追懷序

述夫少年乏賈生之才敢聖宣室後對平已受陸機之賦茲庸世德先陳
 東京創 ∞ 興之業出自月城孱孫 南州襲豹變之文闡得星鄉華閭
 麗世擢博學之科印傳貞齋行錄 聖朝推敦道之皆珍藏晴拜遺文
 肯堂肯構 ∞ 休於 ∞ 此燕 評謨評等從古傳於箕裘
 家 ∞ 洛江之水 ∞ 於洛閩淵源 堂脫道高之山作之道 ∞ 基地
 接名賢輩出之鄉伶所倩氏孝悌忠信 生人才類聚之府 ∞ 不移乎礼樂文章奈何
 自甲以經 零丁其替
 賢父兄凶禍繼日 ∞ 疇依西 愚子孫數女零星質質無識
 人人面牆舉皆不識丁字 家家 ∞ 聲石嗟爾徒呼癸 ∞
 迺者 人文有足可觀 天運無注不復
 眷眷乎受華山齊承師父之明訓 懇懇矣抱書鄉 ∞ 賴益友之篤工

蓬葦浮生殆同未濟之菁莪聖俸堪賢大有之
 花月禩祀 万里天池欲展鴨鳥之翼 十年壁水幾遊矜鳳之場
 嗟呼不幸 泣風雨於秋樹孝思靡追 愛日月於春萱慈教是服 達鴻 軒蠱
 之儀已脫堪作白面書生 之才猶踈恐墜青氈遺業
 苟美苟完先廬遠以∞風雨 適理適疆薄用猶可傳雲仍乃於丁酉春親族先塋
 嫁秋奄移城火之殃 遭灾遞有天水之事
 彼掘此掘之心亶出復讎之卍 前葬今葬之述允∞坎穴之寧
 胃法當律縱 爲親雪羞庶
 云罪於三尺今辰 無愧於九原他日
 其在法網之至重 遂有謫所之遠行
 卍殘質於住石 播孤蹤於他鄉
 身刈五六朔中 路隔三百里外
 柳惠直道之心三黜无怨 王公不屈之意百謫何傷
 雨露編盄照梅拜之∞光 膏俸旁流冷堂陰之風化
 始遠定於黃海之邑 乃近送於清湖之鄉
 慈母是懷忍陟說吧之皆 狔子遠謫難堪尸甕之歡
 北金春日未校寸草之誠 西湖秋水可憐浮∞之跡
 床琴靜好未 庭蘭培植滋
 洽百年之情 休兩株之馥
 玉京銀橋虛度七七之佳會 丹楓黃菊最怜九九之良辰
 岁月遊邁已過蘭成射策之日 風雲腕脫奄值宋玉見毛之年
 花月 禩祀 万里天池欲展鴨鳥之翼 十年壁水幾遊矜鳳之場嗟呼不幸泣風雨於秋樹孝思靡追 愛日月於春萱
 慈教是服 達鴻軒蠱
 之儀已脫堪作白面書生 之才猶踈恐墜青氈遺業 苟美苟完先廬還以庇風雨 遷理遷疆薄田猶可傳雲仍乃於
 丁酉春親族先塋
 嫁秋奄移城火之殃 遭灾遞有天水之事
 彼掘掘此掘之心亶出復讐之卍 前葬今葬之述允∞坎穴之寧
 胃法當律縱 爲親雪羞庶
 云罪於三尺今辰 無愧於九原他日
 其在法網之至重 遂有謫所之遠行
 繫殘質於佳石身繫五六朔中 播孤蹤於他鄉路隔三百里外
 柳惠直道之心三黜无怨 王公不屈之意百謫何傷
 雨露編洽照梅拜之∞光 膏俸旁流浴棠陰之風化
 始遠定於黃海之邑 乃近送於清湖之鄉
 慈母是懷忍陟說吧之皆 狔子遠謫難堪尸甕之歡
 北堂春日未效寸草之誠 西湖秋水可憐浮萍之跡
 床琴靜好未 庭蘭培植滋
 洽百年之情 休∞∞∞∞

玉京銀橋虛度七七之佳會

岁月遊邁已過蘭成射策之日 風雲腕脫奄值宋玉見毛之年

游子悲故鄉自怜蒲柳之質 遠客 ∞ 長夜只懷殺梓之丘

夜月 ∞ 兮流星橫山吁嗟星山在郡 ∞ 秋風飄兮落木滿川認是木川迷其間 謫居旅懷

何時當懷春草漠漠山哀兮浦思於斯爲感暮雲倉蒼烟愁兮月若 所可慰者 來村秀而數墨或忘白日 與謫朋而論文猶棹黃昏

之懷 之念 籠禽繫翁安有鄧林之賢 轍魚处個寧無斗水之恩

飛鴻叫寒巴覺授衣之節 華鶴 ∞ 信將卜反柱之期 除哀哀極

陽壯易道之自然 歡生物理之必有

延平之劍必有期於再合 楚宮之玉終見售於三朝

龍潛九淵終非池中之凡物 鳳翔千仞豈是塵間之微禽

泊陵秋天縱有韓文公泣橋之限 洛陽春日可無司馬卿題柱之期

烏鳥私情只乞反哺之願 鸚鵡巧舌休嘲能言之才

哀此落下腐 只杵在上仁

仗之踈迂人之寬貸今此狃子周政先於四窮 漢詔恤於三月

晨昏意夕無人任於定省 飢渴失時有誰供於甘旨 其在 ∞ 如有疾

想之勞慰懷何處言念與懷 病之故調美無妨徒增填臆

寒風九 ∞ 方功慈故之心 惠雨三春幸蒙婦省之俸則隕首交感 沒齒難亡

大九九

一皆六十用 一百斗六石十斗 一千斗六十六石十斗 一万斗六百六十六石十斗

二則一三五 二百斗十三石五斗 二千斗一百三十三石五斗 二万斗一千三百三十三石

三位各用二 三百斗二十石 三千斗二百石 三万斗三千石

四亥二六十 四百斗二十六石十斗 四千斗二百六十六石十斗

四万斗二千六百六十六石十斗

五位三三五 五百斗三十三石五斗 五千斗三百三十三石五斗 五万斗三千三百三十三石五斗

六亦皆四 六百斗四十石 六千斗四百石 六万斗四千石

七亥四六十 七百斗四十六石十斗 七千斗四百六十六石十斗 七万斗三千三百三十三石五斗

八當五三五 八百斗五十三石五斗 八千斗五百三十三石五斗 五千三百三十三石五斗

九臨 ∞ 六 ∞ 九百斗六十石 九千斗六百石 九万斗六千石

大沛總過 賜環遞常

遙將獻壽之盃 敢進呼山之祝主人出題八月初發行是年 十一月初七日放還

綿然鳳曆值聖世園空 稱彼兕觥獻公堂山齊

之休 之祝 深誠對越拱北辰而環統 景貺潛周映南極而召光輝 恭惟我聖朝寶籙長亨姬八百綿祚 列聖相承殿六七繼作

御乾像九五之位乾楚正中 膺河清千一之期燕謨賜翼

四百年仁化苑有刑措之風 万億載宏晷永懷基命之緒伏惟城火天水

移殃奄遭先塋之變 構禍乃有謫色之行

慈母是懷忍說陟圯之皆 狝子遠謫難堪尸甕之歎
湘潭之日月彌久 長沙之風雨淒零
吁嗟屈子之怨 空江賈生之淚
胃法當律顧何辭於公車 爲親湔讐庶無愧於人子
言念身勢之無卿 只皆聖朝之有慶 伏幸
离明繼照御丹袞之隆尊 坤貞配德時黃裳之元吉
星重輝月重輪聖神繼統 泉一清海一潤德位苻尊
沙麓[∞]積 阿[∞]登咏
乃見漢皇后配懿德 允合聖似氏嗣徽音
旣行徽冊之典 又寵命服之光
禕翟御位頌聖母之淑儀 旭鴈賓床祝賢胤之統紙
王若曰惟聯有慶暨蔀屋而同榮 哀爾無右幸放梓鄉而歸省
三秋暮月放籠禽於鄧林 万里長風散歸鶴於華表 清問之欽恤之
意藹然無愧先王赦所當赦 政博乎允得皇后刑期無刑
灵垓俗俸奚止白骨之銘 山精訴黨不待丹筆之伸
報赦文於圓 点惠霈於春
石灵鵲並鳴 池脩魚雙出
西湖萍水歸不歸兮前秋 南州槐巷樂其樂兮今夕
北堂報歸歎之音殺^상[∞]慶 東床咏樂爾之句琴瑟秦和
仁風普被暨陰壓而三春 惠雨時行霑祐苗而千里
歌古人俸物之恩省黨此日 頌先后放獄之霈御賜今辰
伏不勝賜 庸敢陳柞
環之音 觥之壽
三以頌堯惟功華對之祝 一日陣武敢斜箕範之疇
北闕春風噓子諒之心沛恩雨於八 南山初月頌申休之命引壽酌於千
城 秋 如松柏之茂永英無斲 獻竹苞之頌秩秩斯干
青丘蝶域自在無何之鄉 丹[∞]螭階長坐不老之仙
燕賀騰万 崑崙卜千
年之慶海上添籠 歲之期山下呼酌
舞九功歌七[∞]豈讓皇唐之休 眉八彩目重瞳自做勳華之世
於千万年永受 亘億百世兼得
天錫之礫 神降之福
川其至崗其臺屹溢入路而潤屋 月之恒日之[∞]苻九重而遐籌
同寅拱北賢蔀窩滿前 恭巳面南聖文武在上
三千年結子 八百岁爲春
璠桃長醉 萱灵階老今茲蓬華浮生自有際遇之會 菁莪聖俸可無效勞之功
[∞]鳳之庭 犬馬之誠
只聖拊附 無任晷報

於乎不休 永言無射

拜別慈母

世間女我罪偏深白髮親堂此別臨早泣當年風樹淚脫傷今日老萱心
精神旅鴈叫寒岫身勢慈烏失故林前路西湖三百里遲遲行色涕橫衿

別妻

二八迎歸洛水洲春光虛度好風流十年抱冊多相別四載遊京未暫留
一夜逢期星七夕五更歸夢月三秋男兒鍊石剛腸者此日重催送渡頭

別子

長子十三次八世總受通史解語詩珠蚌秋水聯雙寶玉樹春風朶數
枝托養重堂勤帛肉休干家業襲箕求洞門趨拜聲聲痛笑指故期雁客時

叙懷

少年志業繼家聲自古詩人有此行鄴下功名期鄧禹長沙風雨泣賈生心懸
北斗星辰遠身墮西湖日月長萍水他鄉知已小白鷗款款欲留盟

秋夕

日唱烟霏八月天世皆佳節獨凄然衣冠處處省墳墓茶酒家家酌先
祖思母嫌看隣媪戲懷兒愁對市童伶客中身勢還讐日悲淚漣漣秦若川

浴川

川在木川府門前

古樹清陰近午天春風沂水宛斯川浮生幸得盤遊地洗滌塵心一少年
夜聞揚衣聲

月屆授衣遠客悲砧聲何事故猶遲無事端各覺故鄉夢正是愁人下淚時

雨後卽景

短屣踈雨坐愁人雲鎖千峰宿暮塵滿眼秋色光衿欲冷斜陽開處更精神
贈黃海道遂亦縣韓碩士同懷詩名亨履

他鄉相會不相分君亦吾情我亦君飲心同孟遊共席青山故夢一浮雲

贈木川俞碩士五言詩

秋風落木日遠客坐長林宿霧漳大意浮雲出岫心青山隨處勝碧水逐流
深淳朴木川地人情自古今

九日

九九佳辰遠客中秋懷終日受丹楓盈樽家釀斟先隴獨對黃華泣脫風

宥還日拜賀息命赦歸

重离瑞日繞重宸徽丹黃辰兩慶新鳳下丹泥春意思鶴返鶴華表

月精神周成寶位圉空世唐帝恩綸鑰動辰拜祝南山千岁壽西湖秋水狝

歸人

洛之爲名至矣禹有神黽負盡而出於洛周惟有卜食洛而宅於洛漢室都之而必

於洛陽邵翁屈之而持於清洛以至士大夫盛至於洛而極矣況復論道術則

曰河洛淵源道學則曰洛閩群賢洛之爲水何關於吾道而若是乎載之

經史播於詩律耶吾屈則魯爲而在洛江之厓故兼有山水之勝背山則曰道

高 ∞ 川則曰洛川至有德嶺進 ∞ 退谷而北有岐山則敢文王 ∞ 登之義

也南有吾道則取尼聖一貫之意也夫何山名地名偶与之符合也余前日或

多京洛之行而不得志遂隱於是厓有如溫石兩生之南北厓也家駭

後學非敢有意於前聖賢之万一而以其屈在洛厓故自 ∞ 日洛窩因係之以

詩以貽賢者之一矧耳

洛窩偶吟五言絕句三十二句

洛厓有隱士 自謂一逸民

狝賢後何求 南北溫石倫

烏公彼何人 礼羅空頻頻

家背高山巔 門臨大江濱

年華四十餘 幾煩觀國賓

經綸無所施 志趣有誰諫

推却世間事 歸臥待明辰

於今謝俗客 不求知於人

風月平生意 江湖放浪身

園松風種瑟 岸樹雨中春

鶯歌曉日亂 鳥語夕陽臻

山中此富貴 誰与話其因

讀書非敢富 力穡不憂貧

教子承絃訓 超然一味真

或 ∞ 黃犢牧 時与白鷺親

有時携竿出 釣得白魯鯿

希夷遁姓名 曠 ∞ 遊精神

屈然泉石賢 蕭灑出俗塵

山林自在裡 足跡遠城 ∞

胸海無塵 ∞ 眼界得清新

門外伊誰過 不關行客輪

靜觀天地化 半畝春^{○○}

人間無怨恩 藹然滿腔仁

有酒相呼醉 太古我德隣

村秀來數墨 吟哦自清農

勸爾承教[○] 他月拜北宸

但願多子孫 文章世彬彬

學而優則仕 譽譽[○]躬臣

爲士宣尙節 膽彼有松筠

豎白有聖訓 磨湟不[○]磷

羊腸何足畏 前程車鞿鞣

所懷已如此 不必與世均

又吟四韻二首

世間至樂^인吾身 力穡看書不係人

野鳥山禽多素慣 岸花堤樹未金貧

斜陽駢犢高山下 白日釣魚洛水濱

經說農談終夕罷 幽屜氣味學來其

江山解我主人翁 朝暮風光供不窮

魯爲烟霞粧淑氣 洛[○]花樹畫神功

金浮躍浪繁華勢 劍削層巖造化工

萬事莫如俟聖世 推移何必衆人同

絕句

構屋清溪若有緣 居然泉石枕床過

波聲日夜喧牕下 不與人間毀譽侍

又詠^사韻絕句

翛然茅屋洛江阡 門下清溪枕下泉

萬樹繁華黃鳥外 山林不是忘君計 一江烟月白鷗過 凡^행非無濟世篇

他日明晨拚附志 只將經史養機籬

湖南遊錄

甲寅三月日序

湖南靈岩郡有同宗距吾屜七百餘里也古巳亥年成譜之後暨今七十六

年無一相訪矣余新弁時宗人汝燦潤旭甫因該道試鄉貢而來訪焉其

後[○]音頓絕桃李園之樂事無期[○]村之情話莫叙余常慨焉素

蓄尋宗講譜一作花樹會之意而余亦斯世瑣瑣之人也早泣風樹浮沈於

世故孤其[○]梓陽沒於塵兄西望窮海甘作守堂之^{○○}矣岁甲寅主暮

振發素縑與族兄通仲偕行余查兄祭敬仲甫有遊山觀海之志而共

焉三人同行[○]識吟咏亦一勝事也登山臨海略有所咏而其所經歷之處

人心善惡風僞之正[○]山水之勝[○]靡[○]著錄後之賢者亦或有坐看江山千万

重之意矣

三月二十一日游道高山 翌日發行次有詠

道行先涉道高峰次第尋芳又海南步履相慎期終始千里聯筇益者三
 右敬仲醉裡氣登万仞[○] 峯明朝餘興又湖南此行兼取江山勝況乃佳辰
 月正三右景養釀酒烹狗涉道峯初遙賁主盡東南山中最恨無滋
 味可惜良辰月又三右通仲二十二日發行至涉川留宿二十三日至新溪書院中
 火行二十里登龍起日耀庵留宿洞壑絕奇翠栢紅花滿山層巖疊石[○]
 天觀音殿制度極奢麗有千手佛左右各二十一手兩大手各志一傷頭上
 佛不知幾何諸手各執物各[○][○] 有詩曰昔聞龍起到山頭可惜靈區一
 夜留強把故筇無限意更期他日又来游右通仲 層巖疊石万峰
 頭勢若衝霄復欲留爲惜靈區通世路仙人游盡俗人遊右景養
 龍龕寄在白雲頭能使行人任去留查查岩岩紅綠處南來三客共仙遊
 右敬仲日耀庵有讀書五六人其中李震容字德立[○] 已作科儒龕也無留
 卽和示[○] 客到山窮水盡頭多緣[○] 界半顏留烟霞不逐詩筇去無
 恙疏場數月游右李震容 苔壁[○] 透一路開經冬宿約伴[○] 回童
 休石面行行娥釀花心处处盃拜佛精神山影倒暮漣消息水聲
 來林禽亦解騷人[○] 嘲我諸天雨後坵右李震容崎嶇微路霧
 中開疊石重步步回白[○] 飯飯鍾賢[○] 響紅娥春酒景中盃菴
 寄碧立峰頭出山倒紅流水面來欲聞孤雲嘉遯處[○] 徒笑指一荒
 坵右景養疊石叢林小路開雪峰俄過霧峰回入菴有[○] 成詩軸坐
 榻無人送酒盃川魚躍水忘機出花蝶領風逐景來此地清遊難[○] 記故
 時暫付老仙[○] 右通仲紅流洞口石門開次第尋芳九曲回[○] 佛精神應
 七幅詩人[○] 味酒三盃山客各各新諺對水勢源源古道來崔老文章
 趁俗語[○][○][○] 景在仙[○] 右敬仲二十四日早發行龍起菴穿林被霧僅
 得善之路踰城嶺古白雲山城也歷中峰菴觀音殿國一菴弘濟菴願
 堂至海印中火下板閣六十間上板閣亦同午後出紅流洞兩崖之間紅花雜園粧試錦
 繡之光急瀑狂瀾偷[○] 轟雷之聲眞名勝之地也因賦紅流洞踏盡江
 流万樹深一年春色在花林攜筇逐水道遙下未聞餘香[○] 客心右通仲
 步步探香坐爲深紅花貫壁繡粧林千里長溪難盡景今人迷日滌
 塵心右敬仲 紅花雜洞遂流深方賢紅流虫繡林此江理外觀遊者徒
 說江流自愧心右景養 敬次龔山亭韻狂瀾急瀑出衆巒人坐斜物
 錦繡間太守亦知觀水術小亭構得枕流山右敬養 [○] 得風光下重巒
 有亭如斗兩峰間孤雲詩句軒眉揭方賢仙踪在此山右通仲 白雲常
 繞翠重巒不老仙踪在此間太守之[○] 基深意思府聽流水仰高山右敬仲
 自海卯二十里宿[○] 洞韓進士家富而能文白八厚心善朝出美酒飫飲歡待曲
 接能得金爲之富兼有投[○] 之風也二十五日三十里至屈昌加柞釜洞金進士
 家中火主人能文善談慣於語學亦有曲歡之意滯[○] 小雨待霽至道山書

院留宿院之厚待亦大有 ∞ 於吾鄉之校院也二十六日至矢項尹氏家高門傑閣果有宿聞之風而皆寡屈無主對閉門堂亦微雨灑之無可止避之處僅尋瓦家即喪人也其家亦壯麗而見有衰敗之狀 ∞ 饒飲清酒發行至彰忠祠中火滯雨入鄉校留宿亦善待 ∞ 二十七日三十里過安義至咸物佐石鄭生黃家中火二十里至介坪鄭進士 ∞ 忠亟留宿富至万石門閣之高大屋宇之豐富猶勝雄府之衙舍人氣之魁傑屈處之奢麗不讓於百乘之公侯觀其白八則貪 ∞ 之態薄惡之狀人 ∞ 廋哉夕殮善待而迫逐奴家留宿朝而入則 ∞ 有冷落之態朝飯大不如夕飯床哭皆乞於其子家食處辭主人之意上堂則主人入內其子亦進士而坐其父之座方積粟出傷斗量作錢之際余請曰方此行客行草爲難主人子冷談曰無南草余只曰可惜耳遂發行大抵 ∞ 忠以一蠹之處裔中進士不得一資終老於富亟翁者無他其所處心行事如彼故況奢侈無度男守廳二人女守廳一人見其梳髮則男守廳二人一以梳髮一以滌梳至於束髮而無渠手一接之時及其梳畢女守廳一以進洗手而無移坐撓身之道一以進味飲而和清調之舉匙伸之乃用渠匙而徐飲不其驕其奢何至不至乎金尚謂都下名卿八道雄富無以及此也二十八日二十里至鄉校適遇興學齊齊任何錫文字而受甫方重違學齊雖日無識善淡論有變 ∞ 進酒歡待 ∞ 十里至松坪星山李奎字 ∞ 稱亟松湖院留宿方屈接作詩而接待之道談話之言殖有踈薄間散之意 ∞ 二十九日三十里至全羅道雲峰 ∞ 梁 ∞ 亟善待中火十里至荒山下花樹山有我大祖勝戰碑殿壯看有咏至正廟朝因道臣啓聞立碑值別 ∞ 守直蔡齊恭記文暮年行色到雲峰興感先王大捷功万代 ∞ 基知有自 ∞ 平世界小華東右通仲 嶠南游客路雲峰有閣 귀막然聖朝功此地有何銘 ∞ 曉万年基業始吾東右景養先王碑殿屹如俸一捷遂成万世 ∞ 人天顏其石面千秋頌德小華東右敬仲 十里過兩峰府五里至山 ∞ 吳氏講堂留宿主人之接待一無可觀始知一邑鄉範烏四月初一日行四十里至南原府中火城築回可十里邑屋華麗人物殷富酒食之甘味市井之羅列与達營殖勝 ∞ 客舍壯麗客館十四間門間十一間南門外有廣寒樓七八間廣四間入門路有閣二間樓上有房二間樓前有蓮塘中有嶼 ∞ 節閣極妙前又有嶼竹林密密大抵樓之高大十里外聖之山啟然 ∞ 邑基廣闊名勝東有大川防築柳林查密樓前有烏鵲橋通虹門三穴南門傍有鍾閣 ∞ 鍾懸之重二千斤三十里至高道 ∞ 金喪人亟亟維不饒款寬待留宿初二日至赤 ∞ 江 ∞ 花山石壁如列屏風亦可觀三十里至淳昌府北金同知亟設天爵宴風賢排優之戲亦一觀飲酒而故至鄉廳求酒飲至高慶楊家主人者殖年少兒豐厚而出言似寬厚而送至出齋齋長僕哥者亦總冠冷待夕飯之薄山眞所 ∞ 鶴鳥之一粟米忍飢留宿飢腸冷突反夜猶長 ∞ 成一 ∞ 而及日三竿尙無朝飯所 ∞ 齋長常寄食於楊家而其去其來不同喫否見其姓而知其行日幾午則朝殮來即冷飯不過數匙冷羹不過一宝兒想必 ∞ 餘飯而作嗟來之處食歡其夫妻之爲人去則世間人心易不無玉中之 ∞ 也 南原府有咏此則 ∞ 卽景而 示所見之實也

龍城館外廣寒樓烏鵲橋頭百丈浮湖南五十三州景無遺翰在邀川
 洲右景養南原名勝廣寒樓湖上風光絕世浮城市仙區尤可愛臺
 方館外又○○右敬仲 昔聞名勝廣寒樓來到周觀絕世浮暫過挾
 仙門外出橋過竹○又○○右通仲淳昌金同知天爵安贈○同知前床上
 值一斗米上有教旨聖上褒隆九耋年黃○白髮影花○床前斗米無窮
 數爲壽淳昌不老仙右景養 九十猶難又有年老人星照主人○人間
 五福避峇首世上無仙始見仙右通仲 康衢烟月享○年天爵屺
 尊礼設遙嶠南游客間而嘉滿聖榮光地上仙右敬仲○三日四十里至澤
 ○淵洞李喪人亟善待中火三十里過昌○界至光○○之雄麗亦壯觀北
 堠亭倍勝於達營之堠亭此高齊峰敬命唱義之所也北有大逢
 與咸昌外葛倅等○其下合石沓○慨之水可知其大入府南社稷村鄭
 進士家留宿其亟巨富善待○○中四十里至南平鄉○○火即入鄉廳
 洪聖首善生善人也好○諧沽酒善待十里至道川金生亟○○態即惠
 行資一錢入同里崔喪人亟初忌客而出送於奴亟脫悔迎接乃士人也
 ○五日三十里至羅○食街里中酒三十里至灵岩咏保亭亭○慎崔兩姓最
 爲本郡之名族其他諸姓皆同樛若吾鄉之鄉案○○宴會礼兒甚嚴
 觀其節目條略不若蓋田之鄉約○善待留宿因以元韻其時接待有司
 崔士人也 客到高亭眼力新秀篁芳草正○辰東山月出窺灵異南極
 里通映老人好把遺經治玉石不貪夜氣識○銀休言他日登臨絕萍
 世男兒接有因右景養來到岩灵光物新屺然○夏綠陰辰登堂放
 杖遊行客聖滿迎矜接待人蟾出東山明似鏡魚遊南海躍如銀難
 亭相別相顧語他日南來更有因右通仲 永保亭名欲久新春秋

이미지

이미지

盛會每佳辰善心無異親疎客條約顧同老少人精听風來箕裡
 瑟遙看魚躍海中銀藍田古礼於今見美俗仁風世世因右敬仲
 蓋灵岩府○有月出山即湖南有名山也徃徃起峰峰頭皆載疊石層巖
 透迤數百里峰峰無不如此山餘脉無不皆然若吾人之諸子孫皆受形
 於父祖岩石上皆似有灵異灵岩之○名盖以此敷草七日入灵岩府客舍門
 樓石橋壯看勝於南原入鄉廳臚一○出酒亟飲酒酒母亦畫二椀空酒以邑女
 罕見○行二十里至庸○東洛里李老人亟老人年老兒白氣宇個儻善談
 論欲待中火飽喫飯酒餅三十里至海南打卯洞任○亟留宿主人年五
 十鬚髮皓白新喪狒子絕無世況是夜雨初七日因滯雨連留善待海
 南尹生者能諸者也不見而先以諸贈之山村烟雨細如絲一枕高堂午睡遲
 向脫故來消息好客停隣舍有春諸右尹碩士雨曳村烟細織絲家鄉
 歸日限遲遲三人素是風流客還愧投瓊報果刈右通仲峽裡長磨織
 亂絲客中踈雨苦遲遲任几牕欲做還鄉夢不面何人有此○右景養雲深溪
 柳柳如絲滯雨艱蘭遠路遲咫尺之間千里飽聞清範又清○右敬仲

初八日登程主人贖一錢送其弟出洞口指路錢行眞吾人也伯鍾行弟應行
 三十里至灵岩玉泉面永信院梁責亟有大廳懸序∞有行之亟亟勢傾
 敗∞草宿階除突破壁瀆而善待中火二十里至松∞宗氏亟留二日海解
 之味飽喫無常与∞洞相對一馬場与宗人潤旭有唱酬之∞座中和
 氣一團∞∞酒歡情却甚眞遠路誰知身枉到初遙談笑等於賓右潤旭
 訪我同宗始脫∞相逢不識夢耶眞人情極处忘情對恰似初遙待以
 賓右景養 桃李松溪更發∞倫樂事實天真座中談笑 怡怡地何
 幸良朋共作賓右通仲客到松溪已暮∞高門盛誼抱清真親親然
 後因知白∞仰予欣欣礼接賓右敬仲 十一日歟灵岩宗人汝燦甫至海南頭
 輪山大茆寺洞口有門閣瓦牆中有四十浮屠八大碑牆外有一大碑入寺門樓
 廣闊橫過流水而傍曰枕溪樓法堂奢麗大房舍十有巳忠祠西
 山大禪主壁四溟從享雷默東從享有神位影幀紅物傘錦絲帳
 列環金屏有西山之玉鉉革履架清滴紗灯物祠∞有閣豎立一大
 碑又有新法堂壯麗杜工部所∞寺門高開洞庭野殿閣挿入赤沙湖者也
 因中火十里至縣山面古縣崔賣家留宿亦善人也次大茆寺韻有千佛殿
 吾行深入九梁溪千佛奇形各不齊天恩錦繡錦屏好大棒神灵皆美西
 右敬仲 遠訪忠祠遡碧溪三禪功業如天齊頭輪山下千年佛自此生
 顏大海西右景養有一高樓枕碧溪烟雲落照共天齊此山風物郡
 收ᄃᆞᆯ御製∞東大寂西右通仲十二日欲渡海注蘋島至津峰無般風
 濤大作久成皆遇雨還十里至海南黑石里尹鍾周字宣佐家中大
 連雨留宿厥明又雨中火又沽酒欲之款待愈曲家甚清寒也皆
 海詩大海當∞忽脫豐迷茫天地水聲中商般漁盤佩如鷺始覺魚
 塩濟世功右景養洋洋海水是何風始覺蘋節在此中欲渡無般∞
 眼闊吾行今日惜∞功右通仲嶺外文朋素畏風逍遙不入彼島
 中勝景莫如觀大海休言迢米更無功右敬仲十言傘處五里至
 松山蔡生亟留宿厥明別時沽酒飲之十四日二十里至大興洞金別塩家中大
 二十里還至∞龍洞宗氏亟豎又滯雨豎又滯雨烹狗食海族之味久而益
 豐相別詩千里詩宗一席同晴陰花樹此情通明朝分手何順說
 湖水嶠雲聚散中右景養服盡由来有誼同本源流派古今通
 皇天似惜明朝別風雨山林永日中右潤旭嶺湖花樹古根同天借
 今來世誼通臨別贈言無限意万端心緒一詞中右通仲南北
 芝蘭脫是∞山林烟雨臭相通明朝別後何時見雲樹情懷曷滿
 中右敬仲滯雨三日宗兄潤旭次大茆寺韻松暗水清間小後忠祠卧宇更
 無齊頃忘塵事徘徊立僧曰前程日影西又高浪翻只起列風雪山∞
 轉壯看中臨津不濟何順恨默識乾坤造化功十七日臨別忍卽別送
 至五里許山上相与唱醉遽當餞路散雲斜不盡心懷繼以歌安得平生
 談笑樂願將湖嶺並移亟右潤旭松溪別路峽中斜滿肚情懷寓酒
 歌祇願明春成譜事一家親誼更通家右景養霧罷雪晴日影

斜臨向莫唱別離歌連宵談話情何極杜宇前林促故亟右通仲
 龍山兩日白雲斜詩酒歡情和醉歌莫挽故筇千里道遲遲數月信思親
 右敬仲是日詩宗人登高作別佇立遠聖至不見而啟行四十里至康律府
 登城樓午睡中火十五里至四松亭店留宿十八日十五里至長興府朝飧四十
 里至宝城礼洞李基東家年六十尙爲具慶下五子七孫皆奇貨年少子孫
 不知將來幾許生產廣州人也款待有家法[○]乃戊午唱禍克敦之后也十
 九日過宝城府三十里至彌勒面竹葉店中火十里至風峙蔡生家齋舍留
 宿人皆蠢愚不知接賓之道也二十日四十里至牛山安命新亟中火滯雨留宿
 主人新天長子無世兒出靜庵文集並賢評之乃宝城士施也二十一日十
 里至順天松廣寺中火四山洞壑栗木參天乃進上物也問口水石奇勝渡
 兩虹橋有三清閣[○]虛閣羽化閣法堂壯大有報國大師玉鉉五介此
 能見難思也又有牙齒二介大如辟月又有[○]房十八其僧佛之亟四十[○]
 登高計之不可勝數迷人心目有石井奇絕有雪吐花又倒植老松木
 不知幾百年三盃醉興人長林瀑布[○]泉洞轉深兩渡虹橋何世界
 凌虛羽化是眞心右景養松廣如何揔栗林林間難見白雲深南來
 客到凌虛閣游罷三清愧我心右通仲自松廣二十里至仙岩寺穿林隨流
 不見天日踰泰嶺白晝長昏洞壑之奇絕深[○]所未見也仙岩亦壯麗祖
 殿有本金佛大福殿有純宗御筆前有双鳳翱翔上有童子時舞應眞
 堂八相殿皆影幀曲樓有五虹橋有而[○]午觀松廣暮仙岩看盡禪祠次
 第龕曉飯鍾聲山眠覺[○]徒面面拱長杉右通仲 朝遊松廣暮仙
 岩十二詩天第一龕御筆煌煌題大福鳳遊彩羽似青衫右敬仲 穿林飛
 下訪仙岩第一詩天此不龕最好翱翔雙鳳背婆娑童子舞青衫右敬
 養二十二三十里至順天府亦雄府古号昇平登燕子樓有元韻次元韻[○]府門
 傍日小江南客上高樓已夕物檻[○]花柳正新[○]年年鷺子江南路爲報昇平日
 月長右敬養 鷺子如飛到夕物清溪物色正新芳下樓滯雨思千里只恨
 南風道路長右通仲 順天館外鳳山物鷺子樓名百世芳[○]自江南爰
 處賢化中獻賀語梁長右敬仲十里逢雨至一小店留宿店前有近洞樵童
 來遊者胥謂曰某兩班宅寡婦明日呈議送發行云問之則曰其媳四寸偷賣
 田地故有此舉盖順天之於全節四百餘里也風俗之日昏人心之不淑彼此一也二十三
 曉行至二十里[○]洞黃閣觀亟留宿家極巨富其父中進士有孝行孝子門樓
 高而奢麗以此有反賣納贖二千堂云軒揭聽溪堂雲阜等号後有白於
 山[○]有大川橫通門外林木茂密基地名勝頗有山林泉石之賢臨發美其
 父之行而各贈詩只以[○]答之而無一錢之贖甚可措哉 聽水清齋好起
 屣軒楣生色揭遺書白雲隨處高山仰孝子門庭慶有餘右敬仲
 雲山溪水主翁屣孝子高門大特書立雪潭庭流孤棧方知實行學文
 餘右通仲 白雲山下大家屣孝子門庭好讀主林上清風溪上月主人
 收拾更無餘右景養愧我雲山僻地[○]客從鄒魯好讀主前程爲
 說多奇絕收拾風烟也有餘右黃潤觀無留即答二十四日渡斗[○]江至本道河

東永溪出院中大十五里至眞田文賣家留宿主人出外聞甚善人也其年有
繡衣賞二十五日滯雨脫發二十里至混陽鳳溪店中人二十里至晉節平溪韓
樂安啓哲家善待留宿大抵樂安已經宣川防禦使祖晉節兵使子
方作長髡哭縣塩孫十八武科實武弁大家也二十六日至晉節府眞南節名勝
之地也登轟石樓快[○]至鳴塢亭柳進士亟亟極巨富驢行一菱五卜
至屈文河機張家家極傾故得一錢至德岑留宿一日見面泉寺寺僧僧頑悖
次轟石樓元韻長江何意故緩流有石巖巖義妓節万古忠勳三壯士
八年風雨一高樓魚乾寂寂潛淵限猪鶴啾啾滿堞愁保障城中多
曠感逍遙半日快南游右景養 一帶長江抱棟流右人宛在水之節
三層圍野高城堞百尺深空轟石樓壯士忠魂芳草限香娘精魄落
花愁吾行半月歸裝促不貸風光作好流右通仲 長江視若一盃
流不死英魂宛在節烈士風傳名勝地文章雲集壇高樓天開眞石多
奇絕水鮪義岩鴈恨愁春往夏來觀亦壯綠陰芳草倍前遊右敬仲
二十八日至勝山許賣家中人家極富而待以粥烏二十里至宜寧鄉校留宿校奴
甚頑悖烏二十九日二十五里至梧方李喪人家療飢主人避不見十五里至新返樵
生員宅其父進士故樵進士家主人娶主節大浦云家甚富饒主人不見曰出
外其妻使奴婢迫逐太甚既之夕飯不過數匙夕後迫逐益刻出其奴
家宿盖聞宜寧丹城諸樵之門性然也豈非僻處下鄉無名祖家庭之
學故耶三十日曉至薛賣家朝飯滯雨中火述賦一篇待以粥三十里至
草溪柿洞安賣家留宿五月初一日四十里至高靈三街店中火二十里乃得至本
州舜坪施賣家留宿初二日五十里乃還家回還合一千五百二十五里大抵
靈岩之行過咸陽踰八嶺至南原過水礼谷城長興海南至靈岩玉泉
面通計五百[○]里又過浹川三嘉丹城晋州德山河東光[○]順天寶城長
興康津海南至靈岩玉泉面亦六百里內野
丙辰四月日海州宗氏聖和年七十東僊年六十三以通文來訪於其歸也送
之以序兼以四韻[○] 岁內辰四月海節宗丈不遠千里聯筇果衣足而來爲
改譜事也夫人之情雖年少撫壯者爲先敦宗之心解有保終者而今見宗丈
氏已丁稀年氏洽滿順三矣而老而益堅能人之所不能吁亦勤且摯矣其亦
有感於老蘇之序語孝悌之心油然而生矣淵明之睦族親戚之話欣然而悅
矣噫余早泣風樹奉慈迫暮雖切尋宗溯源之誠而尙未之果西皆海雲只
切水渴之聖矣何幸宗丈先惠賁然叙此先君子之未邊之盛於是乎歎
其天叙彝倫之意也惟願宗丈勿憚道路之脩遠俾正先譜之遺失以遂
盛舉則其亦有辭子吾宗之後生矣遂爲之序
千里遙遙嶺海間相逢花樹盡蒼顏通情盃酒風愈爽論譜新陰
月欲彎安得團圞三道族遂令透鑿万重山明朝別路人堪送水滿
前江百折灣丁巳春若木申景旭字翰伯号癡叟六十七岁一見而托忘年之
契來寓老村出齋因搆拙仰呈白髮蒼顏老不襄高談舉奇又能[○]
悲歌燕市時難遇夙願荊州識已遲深淺俗腸裁闊狹崎嶇世路

善推移而令幸拜忘年契好向春垆倒酒危
 癸丑六七月大旱五十五日以六甲韻作悶旱∞贈家谷姑從張維源
 生丁此旱尙無訛送夏居然日餓寅枯苗難成秋結子恒腸未驗月從
 辰總經饑癸重呼癸己過艱辛又艱辛今世誰能霖賣丑斯民福
 澤自天里始終以雨間苦旱掃麥無禾日畏寅悲赤讖言年是己
 茫蒼計活世何辰巳高天意中橫乙縱發原焦可得辛遙瞻北闕宵
 憂處軫念誰將更體申右首維源

貞齋公神道碑文

有明朝鮮國金堤郡東十里贈判洞有枕乾之原卽檢校參贊議政府
 事朴公諱宜中衣履之藏也公初諱實字子虛糸出密城飯畵摠卽諱仁杞其考也公天資明敏種學續文文章精∞
 典雅与圍隱牧

隱兩賢齊名教授髮士倡明程朱之學爲世宗師朝皇明被恩礼華人
 聚觀稱以海東夫子公知麗朝運訖与叔父諫議公仁翊退隱于金堤之
 興福洞屢徵不起作詩見志仕東朝致位崇顯著名廉清夷險節
 爲期野所与誦賜諡文敬士林亨公于比安屯川祠公有一配延安李氏
 別將壽昌之女合窆清節諱氏直提學塔之女同麓異∞有子三人景文參
 議景武府使景斌參議 贈辦出始公与圍坎詩公講究出處及牧隱∞
 貞齋桓祖碑銘有周雖∞邦其命維新云譜遂決陣洪範之志云公自
 公賣備之語也以公德業不克与圍牧同揆抑亦示天命之改而不失其樵如
 劉伯溫之爲歟公后孫存恒存或謁公麗性之文屢辭而法義而泣懇不休
 感其若血抵述公脫節以歸之碑揭石章用俟尙論之君子云耳崇禎記元
 后四辛亥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經遙館唐城洪直
 弼撰山陽后人吳斗∞書

金堤宗人∞ 증소장

白石面興福洞里民朴潤圭朴學庸朴奎珍謹齊沐百拜上書于
 城主閣下伏以夫子曰惡紫恐其亂朱也惡萎恐其亂苗也惡鄉原恐
 其亂德也里諺曰硤硤亂玉魚日∞珠竊伏惟民等之世∞糸出密城
 君諱孚子諱義臣工部尙書子諱元國子進士子諱皎然四門博士子諱
 奇輔密城府院君子諱洪昇衛尉寺承子諱誠朝靖大夫閣門事子諱
 華大匡輔國崇祿大夫左政承子諱仁杞文科飯畵摠卽公子諱宜中号貞
 齋文科芸文館大提學議政府左贊成与圍牧闡明程朱之學如京師
 華人稱海東夫子入國初謝任退隱子本郡興福洞因爲杖履之所全在三水
 洞羅將二字賜給之地也諡文敬公亨比安屯川出院所著記述多載東國
 史乘國朝詩剛文獻錄及敢隱先生撰狀与本郡邑誌而前後行蹟一無封文
 義之事矣大抵貞齋公前子衫人長曰景文溯出次曰景武府使三曰景斌判出贈
 領議政密院君三兄弟孤后孫散在入或名厓巨族京鄉所共知也不意去癸

西良興德后浦屺朴大龍爲名者使渠之族禎基世基誘送金提稱 ∞ 同
 譜云膽去家藏与神道碑銘山曷而暗然設譜渠家以貞齋公爲始祖
 密城大君以下十一大 ∞ 去繼錄是矣不知何許衍字行字之名系錄于貞齋公諱
 字下長派改本文義造出僞譜者此非狃子孫者之所可痛哭爲然他是
 路上行人必亘万古耳不聞口不道之說世上天下豈有始許敦倫敗常者乎
 所謂文義朴大龍以何許亂類乃敢稱名賢祠胃又改名賢貫鄉系於剖
 劊之文字欺 王章自在從常聲討而做名制爵出渠筆舌可謂家國敗 ∞
 者也昔諱文公贊徐偃公像曰一髮不同便是別人況兄弟配位姓氏之相換
 誤錄者乎若任渠而不爲辨正則日後幾百世之下亘相 ∞ 亂彼此之分貴賤
 之級從此掃如必不無朱紫菱苗之相雜砥玉珠目之難下矣亦 ∞
 不爲今日修譜時所可禁防者乎此輩此 ∞ 無非着乾鱗於馬背掛
 松葉於柳枝 ∞ 邪正之分從法故實然爲其貞齋 ∞ 孫者之心非但薰
 蕕冰炭之打成一圈就不爲不共之讎哉廣明覆載之間有犯分者不敢
 容貸况換本換父易祖一大變怪之 ∞ 舉之尋常若不下呈則想不無後代
 之惑衆而且以民等之事体論之光祖故於亂 ∞ 子孫之修譜極爲寒心痛
 哭處也私往欲爲歸正則以若他貫疎冷之迹 ∞ 彼浦漢頑惡之心難可稱量
 故茲以顛末仰顛伏願閣閣下洞歸敵是後特軫此 ∞ 口明題下所謂朴
 大龍移文捉上於貞齋公墓再之鄉明情正罪卽位報營依律斟酌斷渠
 之做出文義之僞譜一一收來付丙使此密城之后裔決雪顯祖數百載累
 德之烏黨董保先蔭世德之地千万稱愚屏越之至

灵岩應訴狀

玉泉面飛龍洞幼學朴禎基朴鐘台謹齊沐百拜上書于
 城主閣下伏以民等本爲新羅始祖密陽朴氏之裔也名碩相承稱爲東方右族
 至于麗李有諱宜中文科藝文館大提學議政府左贊成諡文題公世稱
 貞齋先生歟圍牧諸賢闡明道學有文集行于世麗亡不仕退屺金堤
 興福洞因有衣履之藏享比安電川出院考諸家承有曰高 ∞ ∞ 王時
 以定虜功臣封文義君云子孫因以文義爲姓貫者當在此時密陽之朴
 分爲三十三本皆此類也貞齋公有二子長諱修後改以衍官政堂文學
 号蒼厓次諱行官平章事号竹石雲仍番盛簪纓相繼有諱潤
 鄉官弘問題學有諱彥誠号樂老亭以學行享尙州淵岳書院卽
 金星州所屺之派也有諱楡諱文德諱貴德皆官至弘問題學有
 諱海武水使卽今興 ∞ 灵岩所屺之派也有諱寧官工曹判書卽今
 海節所屺之派也貞齋公以后文義貫鄉自作一派世有聞人不害爲士
 族而家藏曰譜既与各道詩族會同刊板班班可考則焉敢誣也今有
 治下興福洞屺朴潤圭朴學庸朴奎珍等亦稱貞齋公子孫故考其
 譜錢則貞齋公二子蒼厓竹石沒而不書別錄三子爲貞齋公後有曰
 景殞景武景文實是今文無古文無之名字也然則生之家乘貞齋

公只有二子渠之家乘別錄三子統計爲五旁也五旁皆有崇秩顯爵
 足以光耀譜錢而緣何遺漏致有數百年後一大訟牽乎噫彼朴潤
 圭等構誣先訴於本縣自稱爲貞齋公宗派而指斥生等稱以僞譜
 傷倫敗理莫此爲甚大抵生等宗派一款不可一朝見失也渠以密
 ∞ 猶爲貫鄉則同祖異貫已 ∞ 倫理又況近年渠以貞齋公神道碑
 文就乞於山林門下則據其巫狀編次爲文故既無蒼厓竹石二子
 之列又無文義改本之由生日等以當當宗派見漏碑文之末有若投托
 之族黨痛傷 ∞ 寧欲無生茲敢瀝肝仰朔心伏願問 ∞ 裁處使彼
 朴潤圭等改譜改碑二件事一一修整以正倫紀千萬祈懇不任屏營之
 至 本郡沈等有題教內密陽文義各自爲本者既在十九世則今忽此
 說必是挾雜輩所爲也日後復或有來言此事者來告則自官當捉
 上嚴懲向事辛巳九月十八日在三巨里 彼隻
 朴金剛丙午三月初八日巳時生丙午水壬辰水癸亥水丁巳土
 妻李氏己酉三月初四日子時生己酉土戊辰木壬申金戊子火
 妾金氏辛亥八月初二日卯時生辛亥金丁酉火丙辰金辛卯木不隨
 長子鐘時甲戌正月二十八日寅時生甲戌火丁卯火壬申金壬寅木
 次子鐘徽己卯十二月初九日子時生己卯土丁己水戊申土壬子木石生日八瀛洲
 ∞ 龍池置付

取松葉末法

松葉不恨多少摘取生者 ∞ 細末蒸曝用如餘成片者晒乾易槁或取葉
 二斗太升炒過乘熱同空則易末愚人厭苦者其末蒸再末可減苦味
 然不蒸者有氣松葉空碎盛於袋或以物果衣束沈於流中徑三四日取
 出蒸之晒乾埃乾 ∞ 末其極甘矣

作松葉粥法

松葉末三合米末一合榆皮末一合右和勻打粥可朝夕度飢延年松葉性 ∞ 榆
 皮性滑和之以穀末太能益冒分利二腑不但備凶歉至於有年欲善攝養者
 皆可用法病延年勝於五穀

朴金剛甲戌八月二十一日作妾于梨津金海人平仲之女矣以年計則但爲九
 年以朔計則只爲一百二月以日計則既爲二千九百六十七日甲戌一百二十八日乙亥
 三百五十四日丙子三百八十四日丁丑三百五十四日戊寅三百五十四日己卯三百八十四日庚辰
 三百五十五日辛巳三百八十四日壬午至十月初四日二百七十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나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다 ㄷ ㄹ ㅁ ㅂ ㅅ ㅇ
 라 ㄹ ㅁ ㅂ ㅅ ㅇ

마아머며모묘무유므미므
 바바버버보보부뷰브비브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스
 아아어여오요우유으이으
 자자저저조조주जू즈지즈
 차차처처초초추츄츠치츠
 카카커커코교쿠큐크키ㅋ
 타타터터토토투튜트티ㅌ
 파파퍼퍼포표푸퓨프피ㅍ
 하하허허호호후휴흐히ㅎ
 과괘되뒤 쇠쉬와워 좌줘좌취과꿔되튀화훤

九九法

九九八十一 八九七十二 七九六十三 六九五十四 五九四十五 四九三十六 三九二十七 二九十八 一九九
 八八六十四 七八五十六 六八四十八 五八四十 四八三十二 三八二十四 二八十六 一八八
 七七四十九 六七四十二 五七三十五 四七二十八 三七二十一 二七十四 一七七
 六六三十六 五六三十 四六二十四 三六十八 二六十二 一六六

五五二十五 四五二十 三五十五 二五十一 一五五

四四十六 三四十二 二四八 一四四 三三九 二三六 一三三 二二四 一二二 一一一

六甲甲子乙丑海中金 丙寅丁卯[☉]中火戊辰己巳大林水 庚午辛未路傍土壬
 申癸酉劍鋒金 甲戌乙亥山頭火 丙子丁丑澗下水戊寅己卯城頭土 庚辰辛巳白
 金 壬午癸未楊柳木 甲申乙酉井中水 丙戌丁亥屋上土戊子己丑 벽야火 庚寅辛
 卯松柏木 壬辰癸巳長流水 甲午乙未沙中金 丙申丁酉山下火 戊戌己亥平地木
 庚子辛丑壁上土 壬寅癸卯劍泊金 甲辰乙巳玉灯火 丙午丁未天河水 戊申己酉大騷
 土 庚戌辛亥鍺川金 壬子癸丑桑榆木 甲寅乙卯大溪水 丙辰丁巳沙中土戊午
 己未天上火 庚申辛酉石榴木 壬戌癸亥大海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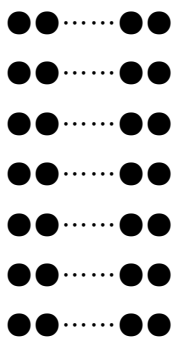
婚姻宮合男金女金有子有女 男金女木相克大凶 男金女水貧困不吉 男金
 女火子孫不孝 男金女土夫妻和樂 男木女金貧困大凶 男木女木半吉半凶
 男木女水富貴多子 男木女火財錄子孫 男木女土半凶半吉 男水女金事事
 大吉 男水女水得官財錄 男水女水多子安樂 男水女火衣食短命 男水女
 土長命衣食 男火女金無子貧困 男火女木福祿財饒 男火女水相別大凶 男火女火万事大吉 男火女土天祿長
 命 男土女金衣食豐足 男土女木

多子貧困 男土女水疾苦不安 男土女火長命富貴 男土女土有子富貴

三災出入法 申子辰生寅年入辰年出 亥卯未生巳年入未年出寅午戌生申
 年入戌年出 巳酉丑生亥年入丑年出

金剛作名訣

●●……●●



內地未報入島秩

錢百兩陽根白樂後 錢一兩黃峙 ∞ 鄭士元錢四兩 ∞ 康津永洞金文守藥 ∞
乙亥五兩三 ∞ 五卜金在何 丙子四兩 ∞ 七卜李平一租자零杀 丁丑一兩五卜新豐
高良中藥 ∞ 己卯一兩劉行洙塩 ∞ 庚辰四 ∞ 七卜乾興金書房木履 ∞
辛巳四 ∞ 文現洙一兩四 ∞ 文瑞一 ∞ 魚貫里金 ∞ 弘一兩星魯中衣接衫 ∞ 壬午
士一兩五 ∞ 尹漢知穀數零杀 一 ∞ 活口味趙夫妻 三 ∞ 津橋張元七可 ∞
佐日李和成遞錢零杀

內地未推尋入島秩

庚申錢五十兩西面紙所李潤九 戊辰六兩論序李申表白木 ∞ 己巳一兩長田
金德民 六十五兩陽根道世鎬 二十九兩三 ∞ 五卜碧沙方在化 四十三兩 ∞ 碧沙崔
植三兩三 ∞ 人卜連洞白扶安 三十八兩八 ∞ 六十連洞尹鍾直八十六兩五 ∞ 沓訟
下記三十八兩七 ∞ 四十碧沙方德慎 三百四兩九 ∞ 三卜己上番事所入都合杀
四兩九 ∞ 自丙子具利推尋松稷次 四十九兩 ∞ 九卜金仲化 甲子三十八兩孫士仁
一百十四兩金甲元 七兩五 ∞ 五卜 ∞ 興崔文衡食杀 十三兩長興朴華一名錢零杀
三十三兩露湖島名錢零杀 三兩九 ∞ 五卜金止鉉 一兩尹漢知栗佃 十兩玖
島朴承奎庚午三十兩金鐵載 二兩花村金仁命曰 ∞ 癸酉七兩海南乃玉
朴守門將 甲戌一兩孟津李瑞一 乙亥六兩玉倉金元伯 丙子二兩 ∞
新興李松兼 辛未一百一兩 ∞ 八卜完島金章汝 六十五兩京道世鎬

門中沓置付

十二 ∞ 令与直業坪三斗 ∞ 作允西乃旭鐘允
七 ∞ 竟与乾橋坪二斗 ∞ 作乃元乃三
十二竟与同坪四斗 ∞ 作惺頻乃一眞老
三卜雲与元化坪一斗 ∞ 作蘭秀
斥二 雲与小礼乾坪四斗 ∞ 作鐘化文叔蘭秀
十七卜籍与新丁子三斗三廿 ∞ 作 ∞ 景
巳 ∞ 甚与梨木坪二斗七廿 ∞ 十五夜味 ∞
長修坪一斗 ∞ 金剛
靈巖玉泉結一戶總始面結總四百九十一伏八十九卜六 | 終面結總六百二十七伏八十卜六 | 兩面合結一千
百十九伏七十五卜六 |
北進坪十六斗落沓連洞秋塩舉付己巳二石負去庚午三石負去辛未七石負去壬申

九石負去癸酉八石負去甲戌九石負去乙亥十石負去丙子二石十九斗一斥五合負去丁丑
三石負去戊寅七石負去己卯七石十斗五斥負去庚辰五石十斗負去辛巳三石六斗
負去壬午二石負去

朴農銀兒函聖烈冠函之泓改以泓又改然書又改炳坤字聖燦号農隱妻金氏兒函璉錦

農隱長子兒函承伯冠函承曄改亨基字子旭妻金氏兒函富任

農隱次子兒名琴伯冠名洪曄二改興曄三改一曄字士仁四改天培字地裁五改禎基字子旬改字子舜
又改字子祥号松溪又号金剛妻李氏兒名善允字中執号米山又号方丈山

農隱長孫兒名再春冠名鐘昊字文淑妻李氏兒名夢愛

農隱從兄兒函鳳文冠函炳龜字汝深妻韓氏兒函一順

農隱次從兄兒函鳳得冠函炳龍字汝燦妻尹氏兒函

珍島三寸面中琴山外家餘在田畚少堤沓四斗落西方秋坪沓三斗七斥落水

實嶺坪田四斗落外祖父母祭祀日子八月二十八日兩位同日

己巳以後北辰坪十六斗落沓訟文書值付三丈白孝洙明文手標立旨

九丈朴金剛明文与呈邑呈營訴狀水營俵音禾穀手標二丈趙世鎬明

文与書簡三丈白扶安僞造明文与本邑囚時方在化訴狀十四丈白曰明

文一丈崔植水營訴狀四丈尹鍾直邑訴狀一丈庚午方在化海南[○]

文卷訴狀右都合文書三十七丈

七日全考 全有酉坐 合窵

晚泰山乾 坐[○]

三日全寒 定洞 坐 有丑子 酉同[○]吳氏寧保女乙 亥生忌庚 午二月了 十二日

生 子武基出糸 女崔珪章

當宁十九年壬午年京奇

六月初九日京奇事意曰軍兵放料時以其米色麗劣及只給武[○]營軍不

給各營軍兵兵六千餘名先往惠廳捉出書吏而亂打惠廳魁首二人捉囚

捕廳矣上項軍兵直入惠堂宅他殺閔謙鎬圍了上下傳洞不問男女老少以

閔爲姓者一并打殺只存幾介女兒杓庭父子亂中逃亡仍向遞領閣興寅君宅

圍住興寅君爲兵刃所傷又往遞惠堂金輔鉉打殺金判書捉路逢閔昌植

又爲打殺仍向大內只願出給中殿殿逃走爲兵刃所害初十日午時昇遐仍向

天仁亭火[○][○][○][○][○][○][○][○][○][○]一生二川[○]兵直向仁川去後事姑未

知文官及武官[○]不計其死

六月初十日六小奇事意內一司謁口傳下教武[○]大將馳往東別宮作闌軍卒招

八查間并曉飭退送後入稟一傳曰咸寧殿役事停役一傳曰順安罪

竄配罪人韓圭稷放一傳曰武[○]大將李景夏計遞代李載[○]除授禁

府草記[○]卒成群作黨攔入府中打破獄門罪人白樂寬擔[○]而去莫可阻

擋不勝惶恐傳曰知道一初十日雨水深一寸啓一傳曰大小公務自今并稟決

于大院君前一傳曰景福宮修理之節更待下教一統理衛門革罷三[○]府

爲號一傳曰白樂寬放一訓大將李載[○]御將申正熙禁將趙義純

除授一戶判許遞代李載[○]除授惠堂有闕代李載[○]差下一傳曰今

日之事尚忍言哉顧余否德叩承丕基既未能懷緩致此無前之變此豈
 渠北斗之故犯而然一則予之否德二則予之否德言之及此不覺寒心在院
 承旨一一曉諭使之退送武承營革之以訓局稱號其 ∞ 各營亦一體復
 ∞ 一傳日領敦寧病患流重遣御醫一傳日申應朝拜相一傳日
 中宮殿今日五時昇遐舉哀之節依例磨練皆哭處所明政殿庭爲
 之一傳日刑曹禁府島配罪人以下放一傳日殯殿歎慶殿爲之一傳日
 宮拙扈 ∞ 值之一礼判李念正一中宮殿昇遐舉哀後問安知道一傳日此
 時營務不可暫曠新畿 ∞ 使之當士到界一京畿監使趙京夏到
 界次書去一傳日葉院提調計遞代趙慶鎬流書落占礼曹領敦字
 李當日卒逝云自今初十日以十二日至停朝市啓一 ∞ 武漸大將李 ∞ 反
 都 ∞ 所堂上沈舜逢宣惠堂上閔謙鎬施以罷識之曲一礼曹知事
 閔謙鎬金輔鉉當日卒逝云自今初一日以十二日至停朝市啓一右議政
 申摠護使單洪殯殿都監提調三單李載 ∞ 趙字夏金炳始卽
 廳六單金寅植韓乾 ∞ 李院夏尹慶水李洛應李容夏國葬都監
 提調三單李念止閔泳穆鄭範朝卽廳六單李憲民李秀殷白義
 行李載永李承瑞申應休山陵都監三單金永水李寅明韓敬深卽
 廳六單李万翼南廷哲申台善李崔 ∞ 李載夏趙景夏一告訃使
 李承字書狀官李健昌
 六月十一日杀奇事意內一雨水深四寸四分啓一傳日承七日並許遞趙秉鎬
 金奎弘朴鳳形申獻水李根秀金鶴淵落点一傳日以日筮朝匡
 濟民國事遣使及傳論於右議政一議禁府草記京外廳最待公
 除磨勘之意分付事一礼曹甘露一日幸柞雨祭停止事一兵曹營
 順三年府事單金判三年府事單申櫛李景宇李景夏李載 ∞
 閔台鎬
 七日初一日京奇事意 ∞ 此書書連納政府受答 ∞ 年事 又曰將依 ∞ 驩
 京而有斗護之意四五百名當隨去自京拙浴路人民亥勿以爲怪預爲
 知悉而館所則以敦義門內眞化門近亥爲之其傍將值護兵留住之所以
 數三亥先点可合亟舍則俺等上京後洋察敦定事又曰花房公史數日
 間將來到濟物浦矣輪向京城時馬五十匹下送而開港財木亦當來到
 矣輪運般限二十隻卜成限一百名得送則雇價當依 ∞ 備給事又曰日本
 人三名行般人自釜山浦乘掛帆般今草甲午時量過勿淄島似到楊花津
 矣各判斗護爲聖事又曰曾前俺等來注時貴國治般支縛爲弊滋
 多從令以往一切除之爲好事又曰冰丁限十駄貿送事仁川浦花房義質
 大般六隻來到則兵判与金弘榮問情次出去
 七月十五日京奇事意曰此書雖書而未矣何日抵之又未知何日付之第今日事亦
 一快然亦一壯觀也聞日間啓艘回還可早七八個日實東知何日出來也且觀接
 待之道優別其中如干人至恭爲幸幸此書入道公事廳一一告之此紙兄弟
 間輪然也維欲入北京衣与計物無絕迎又難者通辭舌負矣到天津

李應後有之云云大幸耳自此明天難蒞二日可抵天 ∞ 而注還可 ∞ 七八日云云忽忽難書秘置待俟付之計耳勿動動安靜之大院位入北京時在海中付書

二十四日京奇事意曰長興府使亟簡內軍擾以後花房義質者率倭兵萬 ∞ 人乘戰般入來間又宴 ∞ 枯闕內善其意則並內和好若不應從則舉兵云云故清國李洪長言內倭与朝鮮還爲和好幸而若不然則倭必伐朝鮮不可不出送救兵清將吳提督馬建忠丁汝昌三人率清兵四千 ∞ 人負入京城各處沒陣至於軍糧自持而來三萬石方任值於冰原府內間又与大院位數次酬酌云云而義質者看清 ∞ 入來特主疑惑退陳於楊花津云云而忽今十四日馬建忠邀大院位位乘四人橋到清兵陣 ∞ 矣清人言內渠將今內朝鮮耳兵切勿入於渠兵陳中云云而大院位四人轎渠輩門 ∞ 而直入陣內無一人隨後者仍無影響追時過南陽時大院位問地名於沙工 ∞ 答曰我是大院位直告汝倅之意分付只以南陽倅一負直入般申陪去而清人言內入于南京可 ∞ 六七日則來往云而未知其安寧還次也此罔極之狀似無其二將何如則爲好鄉清人今到京城四門皆沒陣水原府內又欲設陣於上柳川又沒陣廣津都未 ∞ 前頭之如何清兵維云救兵不可信一自大院位出次後人心日益騷擾鎮木清忠等邑京人尤富下來耳天子論朝鮮國事意曰中朝藩服之邦素東礼義比年以来權臣竊柄政出私門事積禍 ∞ 遂有今年有之變夫弑妃辱主殘民虐吏時 ∞ 發千古之至變也凡亂之興必百主者武由於豪家積威之漸武根於奸私之萌元本各殊輕重斯判頃者變告上聞道路流傳皆言爾國太公寔知其事皇帝因 ∞ 爍然震怒念爾太公既知其事必能從其 ∞ 各命將遣師臨爾國境先以國大公入朝親問事狀一俟罪人得更申天討之威殲桀從明 ∞ 典訓迺旨叩切敢不 ∞ 懍今統領北洋水師丁軍暫与國太公航海詣闕處人骨肉之間全事明義我大皇帝自有 ∞ 衡必不可爾太公有所賅賣當場舉動倉猝恐爾上下怪民未諭斯 ∞ 之妄生疑懼作以元代執高麗忠宣忠惠爲例大負乎茲意之高 ∞ 此外民後 ∞ 亂黨仍以畏迫更造異謀目 ∞ 大兵水陸 ∞ 進已有 ∞ 營此後繼發者海上相續爾自度王師顯拒兵刃可以相抗者發 ∞ 相待 ∞ 可一戰否則 ∞ 鑑禍福早自解反幸勿執來怙惡自速洙責震恐良善嗚呼天朝与朝鮮臣 ∞ 誼 ∞ 猶一家 ∞ 軍門年命以來而体皇帝之至仁爲軍中之律今雷霆百日備聞斯言告諭謫謫尙其悉信諒之

制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倫音七月初七日

王若曰嗚呼予以否 ∞ 猥把民上十有九年不明厥德政失民散罪積于上殃 ∞ 于躬由予所召維悔曷追奧自嗣服以來大興

土木勤歛民財使貧富俱困是余之罪也屢改錢弊多殺無
 右幸是予之罪也毀撤記院忠賢不祀是予之罪身玩好是求
 賞賜無節是予之罪身過信 ∞ 穰之事 ∞ 糜帑藏是予
 之罪身用人不廣宗戚是崇是予之罪身宮圍不庸婦寺于澤
 是予之罪身賄賂公行貪 ∞ 不懲窮民愁苦之狀莫 ∞ 子上是予
 之罪 ∞ 儲胥久 ∞ 吏失哺貢價積欠市井廢業是切之罪
 ∞ 好各國乃是 ∞ 宜施 ∞ 乖方徒滋民疑是予之罪身止竟
 神怒人怨變故百出下凌其上災及六親上貽天子之憂下擾萬
 民之生失信隣國取笑天下此又予之罪身嗚呼予罪至此尚以何
 至目復對一國臣民乎 ∞ 惶愧懼京無 ∞ 面之賢惟爾大小人民
 其 ∞ 乘予 ∞ 過許予自新乎予始洗心滌慮懲前毖後政
 今之從 ∞ 不便於民者悉今 ∞ 之捧循良之吏以收群生 ∞ 究
 實 ∞ 思與一國貞始爾 ∞ 亦宜女 ∞ 乃續告以嘉謨言雖不
 合必無可責之理庶幾 ∞ 綴 ∞ 過其守丕基則宗社之青今
 茲天兵渡海亂道斯討不 ∞ 武宥其 ∞ 黨行始大國中咸與
 維新予方悔過何暇責人嗚呼興國恒於是亡國恒於是安危
 之機凜如一髮尚可不戒之哉茲以數心以告想宜矣悉

癸未五月京奇

會辦軍國事務馬健常所秦禁早婚事男十八女十二人 \diamond 奴僕勿爲世世
 供役事 \diamond 有罪者限十年赴役異其服色平人事 \diamond 男色禁致事 \diamond 田制不拍
 以井田法變通事 \diamond 收用妓工人木事 \diamond 禁孥戮事 \diamond 勿禁改嫁事 \diamond 罪人子孫姑許考試事 \diamond 禁屍置樹上亦務牛
 痘 \diamond 毀徹假家事 \diamond 大官外勿爲卜妾
 事 \diamond 私奪寡婦者用一律 \diamond 道路不齋不精申飭事 \diamond 勿用刑問事
 甲申十月十七日郵政局宴會倭人忽言日自爾國貸用我目之財數甚夥多及
 其準報則已若不然則必以下三南道割報云云而亘相拮据之際見有近變失火之
 家閱泳翊救火次率軍出去路傍有一人頭着南巴回身周衣者以能 ∞ 能伸之劍擊係
 臂一耳雖兌當場之死必無回甦之望矣韓圭稷見屯變起直入關 ∞ 秦 ∞ 大駕與世
 子宮卽爲移御子慶祐宮而倭兵亦隨團西以劍砲物物脅喝且僞傳教趨寧憂
 閱台鎬閱泳穆 ∞ 租淵尹 ∞ 俟韓圭稷諸重臣一人式次次招人隨入卽害而清兵中其時待
 變者雖欲抵倭度力不及卽走告急于表大人表大人奴手執劍突入倭圍凌踏殺散而先
 爲救至大駕移御于下都監一木使 ∞ 兵遂警諭城也外倭沃隨現捉殺則倭沃皆變服逃走故
 又今城也外喪服者乘轎者着後襪者 ∞ 冒卽者並皆禁 ∞ 倭沃之在城也者舉皆被傷遞脫
 者無幾而倭酋竹僉進一卽爲名沃被擒於表大人披閱其行裝則有一都錄朝生內應者大半其姓各
 誰葉孥盡據而其中金沃拍朴泳教雖已身死必有后勘金當遊糜諸邑之 ∞ 渡迷 ∞ 三各倭被
 殺於銅崔沙中之領相沈舜澤左相金弘集右相金炳始 \diamond 徐光範徐載必徐載昌下元達亡命
 王齊沐築珮設幣夜祝日以天地言之則天地則父母以父母言之則父母卽天地故天地父地母并立而不相悖則
 有天地然後

有父母有然後有天地天地者父母也父母者天地也何者有包中疑血成胎而形骸生爲 ∞ 非父母之遺體也三年

丁丑全

洞坐

年洙

見全

哲宗辛亥九

月八日生

閏洙

見恭

憲宗甲辰閏

八月二十

七日生

室遁康金氏 女乙丑生

詳洙

見全

字順甫

憲宗丁酉十

二月五日

生

室晉州姜氏

敏永女丁

未生

順洙

見重

字順化

憲宗辛酉五

月十一日

生

∞ 宁丙子十

二月九日

卒

配慶斗金氏

州彥女甲

寅五月十

一日生忌

懷裡飲乳續骨而血脈通焉 ∞ 非父母之金體也一在天之涯一在地之角万里阻海音信 ∞ 憑故眼孔穿於陟岵音

腸

曲斷於泣血之時伏願皇天覆臨卞土俾屯文範更水父母之顏以終三省之養 ∞ 祈祝之至

易曰○者乾坤上之義否者坤下乾上之義也故體易否○之義不使君處上臣處下而體天在下而地處上已義○上下之情自通

也通天下之情然後好不得蔽聰忠得以納誨而治化矣

濟州前後冠一無得志者環島不壁鋪列海中眞天之險賊艘所不能泊也

濟州邈在南溟之外不与倭國統人烟而日月明即山川秀麗寶貝珠王金錫紋錦之屬絲添銅砂琪花瑤草之類多出其地

而沃野四百余里天府之島也島之中有○擎山女形如鍾如穀龍盤鳳舞○蹲○伏之狀上磨碁穹下拱碧海鼎定於○而築牆建家收以鎮濟水擎實是南方大都會也盖濟節島○自古有別於天下諸國也

道誦目師祝文日十朔胎中之恩豈可○也三年○下之澤焉可報哉偃臥中堂却疑初夜之魂夢藏

棺蓬畢始覺千年之○別千年之上惟加千年子之心猶有不足百年之內未滿百年母之壽何短也長立

路上荷擔老僧空坐而已搆釵閨中未嫁二妹嗚呼痛哉上柁破人○各處前山疊後山疊魂○何大嗚呼哀哉食

大青國雲州天舍山張賜石詩

背山臨流屋樓祿 坐也日安然行也晏然

布衣得暖勝絲綿 長也可穿短也可穿

耕牛一隻百畝田 收也在天荒也在天

雨後清江駕小船 酒在一邊魚在一邊

日上三竿五日獨眼 不是沛仙誰是神仙

清茶○飯飽三饌 早也尙甘脫也尙○

○來妻子話○古也談談今也談談

閒中猶坐覽詩篇 名也不貪利也不貪

右張公隱於天舍山而三十七徵終不進皇帝書屯詩於教旨背贈

南薰殿上五絃琴解吾民之慍兮清風樓上光絃琴悅親戚之情話奈何玉泉之琴

聲何不和曲何不調屯乃刺史之政不治吾當閉闔思過

濟絕無虎豹熊羆豺狼害人之獸又充狐兇鴆鵠之屬

虫豸燕驚蟄日驚蟄時使君子二十一介放油盃眼之則大吉

項몽울애付之其益母事以末蜜二匙醋一匙冷水一匙交合付之則好云云又깃쇠

매에交合付之則好云云

未夫子계戊子詩

黎明即起灑掃庭除宜內外淨潔 既昏便息關鎖門戶必親自默檢

一飯一粥常思才處不易宜未雨而綢繆 半絲半○念物力有艱无○而掘井

自奉必須儉約 宴客勿求盛備

哭皿質而潔瓦正勝金玉 飲食約而精園蔬愈珍饌

勿營華屋 勿謀良田

三姑六婆實淫盜之媒 美婢嬌妾非閨○之福

奴僕勿○俟美 妻妾勿○艷粧

祖先雖遠祭祀不可不誠 子孫雖愚經書不可不讀

居身務在質朴 訓子要有義方

莫貪分外之財 莫飲過 ∞ 之酒
 与賈徒貿易无觀便烈 見孤貧親隣常加溫恤
 刻薄成家理无久享 倫常乖舛立見鎖亡
 兄弟叔侄須分多潤寡 $\infty\infty$ 言環骨肉豈是丈夫 長幼內外宜法肅辭嚴重財貸薄父母不成人子
 嫁女擇賢婿无索重聘 娶息求淑女勿斗厚俸遇貧窮而作驕懲者賤莫甚 건부귀이생침용자최가치
 居家戒爭訟則終凶 處世戒多言則必失
 无恃勢力而凌逼孤寡 无貪口腹而忿殺牲畜
 怪僻自持悔悟必多 怠惰自甘家道難成
 狎昵惡小久必受其累 屈 ∞ 長老急即加相依
 怪聽發言安知其人之讒訴 因事相爭安知在我之不是
 富忍耐三七 宜悉細想
 施惠莫念 受恩莫忘
 凡事常有餘地 得意不宜再往
 見人之吉慶不可生妬忌心 見人之禍患不可生喜幸心
 善欲人見不是眞善 惡恐人知必是大惡
 見色而起淫心報在妻女 匿怨而 ∞ 暗 ∞ 禍延子孫
 家門和順雖饕餮不繼亦有餘歡 國科早完雖行 $\infty\infty$ 餘自得盡樂
 讀書志在聖賢 爲官心存君國
 守分 ∞ 命 順時聽天
 爲人如命 庶乎近矣
 聖人之說信聽 勿爲自暴自棄
 節城九龍弄珠形 武舟形 旌義邑 兒童走筆形 大靜邑 玉女彈琴形
 山東馬主山而家主山 南人主山 北穀主 東南抵旌成而南抵大靜紙 ∞
 在於郭地旌義大靜甲波島石決如 $\infty\infty\infty$ 大石決 ∞ 過甲波島말我島 ∞
 ∞ 夏至 ∞ 出入處倭般所到旌義西歸大靜三方山云云
 壬坐丙向宜門路方五丙門生貴子 亥乾門加官進祿
 乙坐辛向宜門路方子癸門聰明過人 戌乾門美兒文章
 五穀種通 ∞ 己未及收与咸日種大上麥日 亥卯辰忌子丑戌巳日總忌日 乙日破日 癸帝山明日

退溪先生李滉勸學歌

青春少年아히더라이내말슴드러서라 人生世上貴한거시文學반기또잇는
 나虛靈知覺品品受하야生之膝下자라날제兒時屹如巨人志은卽以文學
 知오다父嚴師教勸홀적의暮一夜勤讀홀작이먼傳古聖人썬이오다聖
 賢事業호자하는 沒窮理盡性다후에升堂入室더욱조다三皇五帝道
 德人果文武周公傳授하먼千百年지난後에一朝 ∞ 於遺經하이單瓢陋巷
 曲肱枕天下至樂스지업다顏曾冉閔버슬삼아道德仁義討論홀제光風
 明月발근밤의三十六官往來하이天根月窟도흔景은곳곳마다春回로다
 妾婦付秦眞可笑요禽獸朱崔庸劣호다文章榮 ∞ 分內事요富貴

功名餘事오다堯舜君民소 잘마자鬪然一起홀 작시면生員進士連中호
 고及第壯元하온後의懷中의라紅錦白錦頭上이란御賜花라謝恩肅拜
 다호後의冠帶青衫侈麗호고雙笛花冠압희세우고長安道上橫行호이三日
 遊街馬頭榮은大丈夫의畫彩오다萬人聚現感歎服은天上卽地比肩호이威嚴物望
 하도하서屬槩雄豪거룩호다新恩心子稱호호다迎親到門하온後의
 分官兌身行礼호이紫陌紅塵騰揚호다初職曲籍祿을뵈쳐都耳守令디넨後의持平
 掌令드라호고參議承旨堂上호야全羅監司慶尙監司副望首望호默호이湖
 南嶺南호려갈제王節金章압희세우고竜入旗司命旗로巡磨巡行홀적의列邑各
 官守令더토十里五里迎候호고驅從軍奴使令더런前後左右應護호니勸馬聲이挾路
 호다吹羅聲이動地오다人民더런喪胆호고草木조차구퍼이어와이榮華여호工夫德이오다
 承流室化園召任乙分大又다호後에淸호호民善政碑은筆各萬세우두고兵判吏判淸業
 職을치볼바夕호고左相右相一品職을쓰러호야디넨後의國家은忠臣이요朝廷은
 高士오다爲國安家退老호야原林大聖되여시이忠君孝親君子事乙그뉘라더홀소야迷劣
 板蕩너아호덜라略干聰明傳兮및고學而時習아니호고優遊度日홀이와이나말슴드러서라
 仔細仔細드러서라聰明聖初夏后氏은寸陰是惜호야잇고生而知之大孔聖은韋編三絶하
 야거든너의後生조곰聰明및고倦子勤마라서라一覽輒記顔子淵은勤學好問호야잇고三冬
 學足東方朔은手不釋卷호야잇고東洛사름蘇季子은把錐自股徹夜호고楚先輩孫
 敬之은頭호懸棟達朝호고三年下帷觀苑董仲舒之勤學이요十載匡山
 不호家은李太白之貪學이오園枕不寢司馬光果晝粥忘食范仲淹穿壁引光
 讀書호고螢囊昭冊誦詩호다熟讀詳味積年호야終能大達成功호이成大業而筐
 後호야千萬古之流傳巨擘掩卷卽忘너외聰이暫時小記記憶호야이렁저렁그리타가
 少年須臾지난後외千辛萬古비흔글이虛死空老되오리라詩賦策文말다호이
 道士及第마를쇼냐記姓名올제후호考講書를호야저호이曾時讀을출닌候호少
 年悚惰習이되여武作武輟順心업서粗略間호專望호고都使守令行次호이顛之
 倒之劫乙내여挾曾詩而奔走호고望客舍而搔頭호多足將進而走趨호고口將言而囁嚅
 오다厲호厲聲强忍호야구쓸구쓸讀之다가曾讀而文義不通時讀而면之落講
 大書小書不字쓰고降定軍役호단말가錄丁編伍作遂호야戰笠戰服治裝호고身役
 假布날적의妻子春屬근심호다元木後木作疋호야마초내니宮庭이라그中으로도色惡
 호야假備홀아叩令호이德分白活强리호야至再至三哀乞홀제원님계셔大怒호야形호
 色吏分付호야이농저농無據호농拒逆白活頑惡철사頭髮扶曳스집어서滿庭周回
 두루쓰어棍杖이며笞杖이며無호亂打마즌후에어루기여집오와서田畚이다박사호이
 勸農立人호屬호야假布上納催促할새怒拳打頰如雨호고口不可道凌辱호이受
 杖傷玄刺痛호고辱反말人慘酷호다人生世間살앗다가이아니설울쇼냐鬪然受杖悟소각
 호면글뭇호니그라시오다莫待老來徒悲傷은넛글에버려잇고霜落頭木限柰仰은살
 롬마다만커마는學有三難不成功호고奄過百年지넨後의無益閑談줄겨호고虛浪狂遊貪
 을내여三日學文千載寶은아조忘却호야百年行業虛忘事乙無盡無盡滋味니여長
 來走디니며서甘爲人下自棄호야右今事邊不通호고馬牛褌裾되여서라禽獸은난
 次호이호鳳麒麟야작호고單木의比次호이窺其木春거플호다糞土오比次호이오

穀滋養^ㄴ도더라人間無限萬物中比홀씨全兮업다庸劣板蕩뭇실거시아닌는學
 인可一竜一猪宵壤判은學与不學야날니고爲灵爲遇懸殊間은有識無識라시오
 다조흔田畝願티말나주馴万鍾글려잇다조흔妻妾願티말나一色佳人글에잇다
 諺文半튼眞書半튼一隻字千金^ㄴ다아마도學則成이오不學則不成이이부되잘일거
 서라文科及第自來호이라

古甲子

甲關逢子困敦乙誨蒙丑赤奮丙予非寅攝提丁疆圉卯單闕戊著雍展
 執徐巳屠維巳大荒庚上章午敦牂辛車光未協洽壬玄默申涸灘癸昭陽
 酉作噩甲關逢成闈茂乙旃蒙亥大淵
 孔子忌日甲子倉頡忌日丙子并忌入學求師后稷忌日癸巳忌裁種 扁鵲忌日辛未忌服^ㄴ合^ㄴ風伯忌日甲子河
 伯忌日庚辰并忌^ㄴ船
 默齋癸酉三月三十日始得號金^ㄴ壬午五月初二日丁亥始作號懶惰乙酉三月
 二十八日丁卯始作號
 이미지

若^ㄴ文章借平此書爲是矣

密陽邑誌貞示公下景文武頻麗史頻武文九同^ㄴ只有修字以出意文矣
 又金^ㄴ爲各如意安樂且耳目之所睹心志之所樂庶幾小成之意有序文次
 又金堤^ㄴ實事自密陽來往之意有序文次
 癸酉族譜時譜印二十三秩內分去值付六秩越去慶尙道一秩持金剛一秩
 持^ㄴ基一秩去岩泰一秩持惺斌一秩持永信一秩持鐘昊一秩去珍島
 一秩持奇淑一秩持和執一秩持大龍一秩持巨龍一秩持麗龍餘五秩
 留在休卿家
 이미지

[현대역]

김익순전이라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불행하다 이 내 몸이 여자로 태어나서, 김익순의 손녀로 문벌(門閥)도 좋을시고, 금옥(金玉)처럼 귀하게 길러 오육세가 된 이후로, 맛이 좋은 여러 가지 다과를 입맛 없어서 못 다 먹고, 분벽사창(粉壁紗窓) 홍촉(紅燭) 아래 책도 구경하고, 세시복랍(歲時伏臘) 좋은 때에 상육도 던져 보고 즐겁게 지냈더니 나이 이십육세라. 고르고 다시 골라 강호에 출가하여, 한 절강의 손부(孫婦)되어 가문은 이름이 높아 만족하건만 가산(家産)이 넉넉지 않아 살아가기 막연하다. 수간모옥 정강상의 다만 서벽뿐이로다. 서늘한 찬 부엌에 다만 국을 끓이는 나뿐이로다.

신행(新行) 갈 때 많았던 하인 누가 있어 죽인들 먹일 수 있겠나. 많고 많은 하인 그저 가니 어이 없어 그저 웃음이라. 나중에 오신 오라버니 울면서 보고 아시는 말씀 할 일 없으니 그저 가자 하네. 식구 여가 두고 어찌 그저 가리요 하니, 오라버니 말씀하시길 실언(失言)이요 가자는 말씀 실언이요. 여자로 태어나 삼종지례(三從之禮) 있으니, (*삼종지례:여자로써 지켜야할 세 가지 덕목, 즉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름) 부부로 정해진 후에 남편을 좇는 것이리라. 남편을 따르는 데 빈부(貧富)를 따를 손가 별당 화원 좋은 집은 친부모의 옛집이요 쓸쓸한 수간초당(數間草堂) 시부모님 계신 내 집이라.

덕분을 어찌하며 팔자를 속일손가. 출가외인(出嫁外人) 생각마시고 평안히 돌아가소서. 지금 시부모님 삼일만에 주하로 들어가니 팔십된 부모공양 무엇으로 한다는 말인가. 은비녀 저당 잡혀 쌀을 팔고 반찬 사고 나무 사고

오육일 지난 후에 그것으로 어찌 지낼 것인가. 혼수한 것 많건마는 족히 감당하지 못할네라. 친가(親家)에서 조금 도와주나 그것으로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천황 같은 서방님은 글밖에 무엇을 알리요. 나이 많으신 시부모는 다만 망연자실(茫然自失) 뿐이로다.

시샘 많은 시누이는 없는 듯이 무슨 일이고 하고 듣고도 못 듣는 체 보고도 못 보는 체 말 못하는 병어리인 체 걱정 없는 병신인 체 아무 죄 없이 꾸중만 듣게 하더니 내 고개 숙이니 잠잠하고, 나이 많으신 부모 마음 행어나 혹독한 살림에 부모님의 정성 생각하는 마음 어디서 생각하며, 시부모님 앞에서 웃는 낯이 내가 즐거워 그러하는 듯이 내 개떡과 보리죽을 탐하여 달게 먹으며, 육승포(六升布)와 사승목을 가늘고 곱다 하여 기울여 풀어 놓은 비단 다발 눈에 차서 곱다 하며, 일곱되 팔아온 쌀 빌려 먹은 콩 두 되를 이렇게 저렇게 갚고 나니 먹을 것이 있을소냐. 그너라 좋은 듯이 즐거워하며 날고기는 개 닭인들 어른 앞에 감히 ○○, 부인의 목소리 집 밖으로 행여 날까 닭이 울어 새벽 되면 오늘날은 어떠할고 딱하고 조심스러운 마음 시주인들 잊을 것인가.

행어나 혹시 누구에게 소문날까 조심도 끝이 없다. 친가에 편지하여 서러운 사정 부질없다. 한 번 두 번 아닌데 친정부모 굶주리는 모습 자식된 마음으로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방비하는 설매 불러 같은 동네 이웃집에 보냈더니 다녀와서 하는 말이 전에 빌린 보리도 아니 갚고 염치 없이 또 와서 양반의 비위라 되지 뻔뻔하게 또 왔느냐 두 번 말 하지 말고 가라 하니, 한심하다 이 내 몸이 금의옥식(錦衣玉食)에 둘러 싸여 길러져서 (*금의옥식:비단 옷과 흰 쌀밥, 부유한 생활) 가난을 몰랐더니 한 순간 가난하게 되니 복이 없어 그러한 것인가 분하고 원통하네.

슬프다 이 내 신세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목구비(耳目口費) 남과 같이 생겼고 수족(手足)은 멀쩡하니 이제 힘써 살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시비하리. 가난을 벗어나고자 분한 마음 고쳐 먹고 치산범절(治産凡節) 힘써 하자 이부자 김부자는 씨가 본래 부자든가 밤낮으로 힘써 벌면 나인들 아니 부자될까. 여

러 색깔 명주실의 가는 실을 울울이 뿔아 내어 유황 그릇 큰 베틀에 필필(匹匹)이 짜내서, 할임주서 의복을 만들며 병수사(兵水使)의 의복을 만들며 녹의홍상(綠衣紅裳) 여상(女裳)이며 청장관의 도복을 만들며 어린아이의 자리옷이며 팔십 노인 솜옷이며 원앙침(鴛鴦寢) 수 놓기와 봉황 단에 무늬 놓기 낮이면 두 필이요 밤이면 다섯 가지, 길쌈도 하려니와 전답(田畵) 얻어 농사짓세 때를 찾아 힘써 일하니 가업(家業)이 추성(秋成)이라.

알알이 세어 먹고 푼푼이 쌓인다. 뒤뜰의 밭을 사고 앞뜰의 논을 산다. 울타리를 뜯고 담을 쌓으며 때를 걷고 기와를 올리고 가마솔이 줄줄이 이어져 수정합이 쌍쌍이라. 안팎 중문 솜대문 뇌성낙우 벌려 있고, 돈 세기 넉넉하고 씹씹이가 풍족하다. 시집 온지 십년만에 가산(家産)이 수만 재라. 능라금수(綾羅錦繡)로 옷을 지어 철철마다 갈아 입고, 혼인장사(婚姻葬事) 못 치른 사람 있으면 돈을 주워 도와주고, 가난한 일가친척 못 사는 사람들 내 집같이 도와준다. 그간의 일들 소용백금이 거의로다.

아들 형제 급제하니 뱃살이 핵핵하다. 내와(內外)가 해로(偕老)하니 팔자도 좋을시고. 딸을 길러 출가 시킬 때 손을 잡고 이르는 말이, 남편 대접 극진히 하여라. 부부유별(夫婦有別) 있으니

하늘이 정한 인연으로 배필이 되었으니 오랜 세월 고통과 행복이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만일 행실이 부족하여 한번 눈 밖에 나거든 한 평생 동안 용납되지 않으리니 이 누구를 의지하여 살라는 말인가. 죽은 사람 생각하면 꿈에라도 보거니와 산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면 한 평생 동안 원수로다.

만나면 눈을 흘기니 묻는 말이 있을 것인가. 남남이 서로 만나 정을 맺어 유별함이 있으니 인정이 끊어지면 남남도 못하리라. 애달음사 후회한들 옛 정을 다시 볼까 엮어진 물이 다시 찰가. 딸 아이야 딸 아이야 시집살이 조심하 하여라. 시아버지는 하늘이요 시어머니는 땅이로다. 물이 길게 흐르고 높은 하늘 땅이 어찌 이길소냐. 여자의 제일 행실은 유순한 것이 으뜸이라. 남편의 뜻을 받들어 모든 일을 순종해라. 남편 식성(食性) 맞추어서 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어라. 성품나면 웃어주고 꾸중하면 잘못했다 빌어라. 더러운 것 버릴세라 용렬한 말 들을세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연히 눈 밖에 나니 초림(草笠)동이 어린 신랑 부디 쉽게 보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 하늘이 크게 화내면 어렵도다. 장성한 다를 날에 소박하면 슬퍼진다. 하느님 하는 일을 땅이 어찌 막을 것인가. 여자가 강성하고 남자가 유약하면 음탕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고 집안의 법도가 소석하면 암탕이 운다는 말이라.

빈계신명 죄양되어 망가망신(亡家亡身) 하느니라. 신하가 충성하면 국가가 태평하고 아내가 현명하고 절개가 있으면 집안의 법도가 흥성한다. 한 돈 한 되씩 모은 천 석 곳간의 눈을 감히 속일 것인가.

바르게 한다 장담마라 그런 뜻도 이상하여 심복처럼 공경하며 손님처럼 대접하고 앞을 보고 걸음을 걷고 조심하여 말하여라. 제사 음식 차릴 때에 부정한가 조심하고, 필요하지 않은 웃음 웃기 어른 앞에서 더욱 하지 말아라. 신발을 끌고 기침하여 진정하고 문을 열어라. 행동거지 처신범절 진중하게 하고 가 법계 하지 말아라. 빈 방 안에 들어가도 어른을 모시듯이 조심하라.

등잔 뒤에 앉는 것과 문틈으로 엿보기는 점잖지 못한 집 행실이라 남의 집 참견 말아라. 이웃집 시비하기 남과 부디 탄치 말아라. 네 몸을 네가 추슬러 남이 웃게 부디 하지 말아라. 어두운 밤 호정출입(戶庭出入) 불 없이는 부디 하지 말아라. 정신을 가다듬어 어른 앞에서 졸지 말거라. 선영전의 내린 기명 간 직하여 잃지 말아라. 그릇이 부족해도 제기(祭器)를 내어 먹지 말아라. 악한 말 부디 하지 말아라. 제신명이 해로우니 부모님이 낳아 주신 혈육 다치지 말고 조심하여라. 화제총신 본을 받아 아무쪼록 배우도록 해라. 하다가 못하여도 하는 것만 같을소냐. 내 나이 육십이라도 남편에게 조심하거늘 화촉을 밝힌 첫 날밤과 다르겠느냐. 천하에케 옳지 못한 부모 있다는 말 못 들었네. 저 건너 개똥어미 시집살이 한다는 말은 너도 들어 알거니와 다시 알고 경계하여 잊지 말고 명심하거라. 저가 처음에 시집올 때 집안 재

산이 수없이 많았음이라. 안팎 중문 솟을대문 사환노비들 벌려서 있고
보리 노적 콩 노적을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시집오던 날 가마문 나서면서 눈을 들어 굴러보니 행동거지 해연(駭然)하다. 다담상의 많은 음식 생방
먹기 이상하다.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 조각을 주섬주섬 집어 먹고 트름하고 방귀 끼니 더구
나 해연하다. 많은 빈객(賓客) 시비(侍婢)들이 누가 아니 외면하리. 행실이 더욱 이상하다 사오일 지난
후에 담에 올라 사람 구경, 문틈으로 엿보기와 마루에서 침 뺏기와 바람벽에 코풀기와, 등잔 위의 불 고
기와 화로에서 불 찌기와, 어른 말씀 꼬리 달기 어린아이 나이 적기 일가친척 이간질 하기, 이웃집 부인
흥 보기와 비복들의 험담(險談) 부추겨 아는 체 하고 시비하기와 행자초매 불태우기와 고은 의복 기름
칠과 제사 음식 주전부리 초당 대청에 비스듬히 서서 이 잡기와 드러누워 낮잠 자기 달로 잃고 방자하
게 행동하기 보릴 잃고 악담하기 사람들 모여 있는 중에 박장대소 방 앞에서 옷 벗기와 천석군의 부
(富)를 믿고 굶는 사람과 흥보기와 시부모의 꾸짖는 말씀 악담으로 대답하기 힘써하고 제 남편의 꾸짖
는 말 포악하게 대답한다.

제 행실 그러하니 좋은 심성인들 있을 소냐. 사람 체면 없이 여기니 남편인들 사랑하겠는가. 잘 되는 사
람 시기하기 싸움 불붙이는 것 좋아하기, 이렇듯 행실이 부족하여 내 집에서 용납하지 못하다가 시모상
사(媿母喪事) 맞은 후에 묻지도 않고 들어오니 양반 집안 체면으로

차마 어찌 내칠소냐. 그러하건만 아내라고 집안 재산 맡겼더니 저기 보소 저 여편네 집안 살림 하는 행
실이 가소롭다. 나인들 동네 인심 못 들었을까. 떡을 하고 밥을 지어 오는 사람 더 주기와 이웃집 젊은
덕과 너도 좇아 나도 좇아 곡식 주워 팔아 돈을 사고 돈을 주고 고기 산다. 썩은 고기 손님 주고 상한 고
기 개를 주고 삼간당옥 간벽장이 어물전이 되었구나. 사이 사이 빛을 받아 온갖 물건 흥정 같이한다.

밤이면 밤참 먹고 낮이면 점심 먹고 남편에게 주자하니 걱정소리 괴롭도다. 바깥 사랑 늙은 시아버지
꿈에나 생각할까 집안 살림 못하는 것 절통하고 애닦도다. 제 복 있어 잘 사는 것은 그 누가 시비하리.

왜포단 당목이며 무명베 필대로 사들여 돈을 주고 옷을 짓고 곡식 주고 마전한다. 줄줄이 짝을 지어 자
개함 자개농 반다지에 가득가득 넣어 두고 전곡(錢穀)을 두루 훑어 기명(器皿)도 많건마는 왜하기(倭畫
器)며 당화기(唐畫器)며 놋동이며 유리병을 줄줄이 사들여서 삼○고에 쌓아 두고, 정일하여 손비비기
무당 들여 성주풀이 우리 내외 금실 좋게 지성으로 쌀을 주고 자손 많고 부귀하게 정성으로 빌어 주소
액막이 해주라 옷을 주며 장수(長壽) 빌어주라 돈을 주며 양돈주고 쾌돈주며 수저 주며 밥그릇 주며 산
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기

불초불목(不肖不睦) 제사 잘 지내니 귀신인들 도와주라.

담병(痰病)이며 풍병(風病)이며 이질(瘵疾)이며 안질(眼疾)이며 우환이 연이어 이어지니 조상인들 없겠
는가. 박대(薄待)하던 늙은 부모 상사(喪事)하니 어찌하리. 세간 탕패(蕩敗)하여 노복인들 있을 소냐.

제사 음식 차릴 때에 정성 없이 하였으니 제 심사가 그러하니 남편인들 있을소냐. 재앙이 없을소냐 자
손이 끊어지니 형용(形容)도 망칙하다 양화도 극진하다. 문전옥토(門前沃土) 좋은 전답(田畝) 물이 넘
어 들어 냇가가 되고 크기도 큰 좋은 집이 불이 붙어 밭이 되고 태산처럼 쌓인 죄를 누구에게 죄를 묻는
단 말인가. 원통하다 서러울시고 참혹하다 개똥어미 홀로 남아 한 몸뿐이로다. 망한 빈 집 어디를 둘러
본들 몸 숨길 곳 있을소냐. 다 떨어진 봉침 위에 이웃집에서 얻어 먹네. 새벽 서리 찬 바람에 이집 저집
가며 달리니 절뚝발이 병신 되어 기침소리 요란하다. 불회불목하던 행실 그대로 분명하게 재앙을 받아
복정화음 하는 길이 이렇게 보면 분명하다. 딸 아이야 딸 아이야 시집살이 조심하여라. 어미 행실 본달
고 개똥어미 경계하여라. 어여쁘다 딸 아이야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잘하여라.(동동축축:공경하고

삼가서 매우 조심스러움)

일가 친척 우애 있기는 부인에게 달려 있으니 형제간에 우애하고 노복에게 진중하게 대하고 손님 접대하는 예의범절 제사를 모시는 것과 같이 하라. 아내가 현절하면 남편에게 체면이 선다. 아이를 꾸짖어도

저절로 극진하게 할 것이라. 남편의 의복과 음식 잠깐인들 방심하라.

칠거지악(七去之惡) 범하지 말고 삼종지의(三從之義) 명심하거라. 불회불목하는 말이 만일 한번이라도 나오게 되면 자기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모녀 함께 입에 오르내리는 수치라.

양반 가문의 여자되어 어찌 아니 조심하리. 제 한 몸의 수치스러운 일로도 남편 명성 깎이느니 부모의 망신이라. 부모회행 으뜸이요 남편 대접 조심히 하거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